

ISSN 2383-9872

밑 불 이 되고 불 씨 가 되 자

2018년 겨울



# 노들마라톤



(사)노들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 「노란들판」

장애인문화예술 「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 노들바람 이야기 구성

02 노들바람을 여는 창 \* 김유미  
03 열두 친구 이야기 \* 고병권

---

06 1월 김명학  
08 명학 자립했습니다 \* 김명학  
09 15회 정태수상 수상자 김명학 동지! \* 박승하  
12 2월 김경남  
14 꿈도 꾸지 못했을 지금, 자유 \* 장희영  
15 경남 이야기 \* 김유미  
18 3월 정수연  
20 딸과 아버지의 공동투쟁 \* 정중훈·정수연  
22 수연 언니의 자립 체험기 \* 박임당  
26 4월 김호식  
28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사람, 김호식 \* 노규호  
30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 \*故김호식  
34 5월 김선심  
36 훗날 날아라, 꽃님 기금! \* 김정하  
38 6월 박정숙  
40 저는 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해요 \* 박정숙  
42 빛진 마음에 벽돌을 놓습니다. \* 박정숙

---

44 7월 추경진  
46 꽃동네에서 나와 노들로 \* 추경진  
48 8월 박소민  
50 앞이 캄캄해요! \* 가나  
56 9월 임태중  
58 태종의 이야기 \* 한명희  
60 10월 김동림  
62 공무원 인권교육을 다녀와서 \* 김동림  
64 11월 장애경  
66 애경 이야기 \* 김유미  
70 12월 박경석  
72 TFT 전문가 PKS 를 만나다 \* 최한별  
75 <부식들> 그리고 다시 박경석 \* 장선경

---

77 노들 후원자님께 \* 김명학  
79 고마운 후원인들



노들바람의 '노들'은 노란들판의 준말입니다.  
농부의 노동이 녹아난 들판에 넘실대는 결실들을 뜻하는 말로  
노들인 모두 대지를 일구는 농부라 생각합니다.  
시퍼런 '경쟁'의 도구로 차별과 억압의 들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연대'로 '인간 존엄성과 평등'이 넘쳐나는 노란들판을,  
그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농부들 맡입니다.

제117호 2018·12  
만든곳 (사)노들·노들장애인야학·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공장「노란들판」·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발행인 박경석 편집인 김유미  
편집위원 김도현 김명학 김상희 김진수 정소영 민아영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층  
전화 02-766-9101-6 전승 02-2179-9108  
홈페이지 www.nodeul.or.kr  
전자우편 nodlbaram@gmail.com  
디자인·제작 (주)크리에이티브 다다(02-518-1571)  
\* 「노들바람」은 크리에이티브 다다에서 디자인을 기부해 만들어진 책임입니다.



묵묵히 함께 가는 길

# 노들바람을 여는 창 -

≡ 편집인 김유미

야학 사무실 제 책꽂이에는 제가 편집자가 되어 만든 소식지 <노들바람>이 책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십 권이 넘는 이 책들을 바라보며 너무 많다 싶어, 놀랄 때가 있습니다. 책 안에 저질러놓은 실수들과 이상하게 써놓은 글들이 기억나 종종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쓰는 건,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만난 사람들 때문인데요. 이 분들은 제가 노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노들바람>을 만들어주는 '크리에이티브 다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9년 제가 전임자에게 소식지 업무를 이월 받을 때, 디자인은 디자인샘(크리에이티브 다다의 전 이름)이라는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후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가 마무리되면 다다에 보내고, 다다에서 디자인 시안을 보내주면 다다 사무실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교정을 보고 인쇄를 넘겼습니다. 다다의 임세연 대표는 저보다 더 오래 20년 넘게 <노들바람>을 만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본인이 직접 작업을 했고, 요즘엔 다다 디자이너들이

함께 <노들바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다에서 지난 가을에 노들과 또 다른 작업을 해보고 싶다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 첫 프로젝트로 2019년 달력 <열두 친구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보았습니다. 달력 판매 수입금은 저희의 '밑 빠진 독', 학생 무상급식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달력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책 열권으로도 부족할 정도인데 한 달, 한 페이지로 소개하는 것이 아쉬워 이번 <노들바람>에 그 분들 이야기를 좀 더 담아보았습니다. 달력 속 주인공들이 그동안 <노들바람>에 써주신 글이나 다른 사람이 그에 관해 쓴 글들을 모아서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노들의 학생들이 살아낸 삶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과 섞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열두 친구 이야기

≡ 고병권

맑스, 니체, 스피노자 등의 철학,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책을 써왔으며, 인간학을 둘러싼 전투의 최전선인 노들장애학궁리소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국가의 한계, 자본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할 생각이다.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부하는 내게는 열두 친구가 있다. 1월의 명학은 며칠 전 노들에서 환갑잔치를 열었다. 학교에는 가 본 적 없지만 올해로 25년이 된 노들을 25년간 다녔다. 노들과 연을 맺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행거간 것은 한 조각의 시간이지만 그에게는 온전한 시간이 남아 있다. 그래서인지 노들의 깃발도 언제나 그의 품으로만 파고든다. 지금도 사람들은 거리에서 노들을 찾을 때마다 깃발의 등지인 그를 찾는다. 노들에서 공부해서 좋고, 밥 먹어서 좋고, 투쟁해서 좋다는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한다. "김명학, 노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월의 경남은 지적장애인이다. 복도 벽을 타고 오는 노랫소리가 언제나 그녀보다 조금 일찍 등교한다. 행사 때 음악이 나오면 그녀는 친구를 맞이하듯 뛰쳐나가 춤을 춘다. 노들에서 글자를 하나씩 익히고 있다. "야학 오기 전에 이름은 썼어요. 근데 글자들은 너무 많아요. 배워도 배워도 새로운 글자가 계속 나와요. 아는 글자

는 반가운데 모르는 글자는 힘들어요." 사귀기에는 너무 많은 글자들. 힘들면 그녀는 글자들을 오려낸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은 종이목걸이가 되고 어떤 것들은 딱지가 된다. 또 어떤 것들은 어느 부족의 화폐였던 조개더미처럼 노들 어딘가에 수북이 쌓여 있다.

3월의 수연은 반짝이는 눈과 살인미소의 소유자다. 장난기도 많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야' 하고 불러 세우고는 '아니' 하고 돌려보낸다. 누구도 화를 내지는 않는다. 눈빛과 미소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손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야' '응' '아니' 등의 외마디 말을 한다. 이 모든 게 등을 흠뻑 적실 정도로 힘든 일이다. 그런 그녀가 손가락에 걸린 줄을 까딱하면 작은 선풍기가 돌고 그 바람에 종이 흔들리면 노들음악대의 연주가 시작된다. 교사들은 그녀의 외마디 말과 함께 실려 온 눈빛과 표정을 읽으며 대화한다.

4월의 호식은 목소리가 걸걸하고 우렁찼다. 이제 그

# 열두 친구 이야기

소리는 기억 속에서만 울린다. 꽃들이 화사하게 피던 봄날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술을 좋아하는 그는 언제부터인가 니체의 말들을 그만큼 마셔댔다. 그는 루쉰의 먹에서는 피 냄새가 난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렸고 카프카의 '빨간 피터'를 자기 이야기마냥 좋아했다. 그러나 자기 정신의 토양은 장애를 꺼안고 울고 있을 때 할머니가 토닥이며 들려준 옛날이야기라고 말하곤 했다. 그의 꿈은 동화작가였다.

5월의 선심은 온화하지만 강하다. 38년 동안 집에 갇혀 살다 생애 첫 외출한 곳이 시설이었다. "유리병에 갇힌 느낌, 그거 알아요?" 원장은 그녀의 삶 전체를 쥐고 있었다. 활동가의 도움으로 거기서 나왔다. 그 뒤 하루 한 끼만을 먹으며 매달 20만원씩 8년간 모았고, 그렇게 모은 2000만원을 탈시설 운동가들에게 내놓았다. 다른 데 쓰지 말고 한 명이라도 시설에서 더 데리고 나오라고. 그들에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6월의 정숙은 시인이다. 몇몇 사람들과 시집을 펴내기도 했다. '같이 죽자'는 아빠 몰래 집을 나왔다. 양장 기술을 배웠고 여기저기서 일을 했다. "노들은 처음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어디서나 사람들은 그녀를 의식했고 그녀도 사람들을 의식했다. 그런데 노들에 오면 반갑게 이름을 불러줄 뿐 아무도 그녀의 장애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한때 그녀는 종이 접기에 열심이었다. 할머니가 되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까봐. 그런데 이제는 혼자 남겨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은 스쿠터를 타고 멀리 나가보기도 한다. 뒤에 믿는 게 생겼을 때 사람은 앞으로도 가볼 용기를 내는 법이다.

조개가 벌에서 품어낸 진주 알갱이처럼 친구들의 보

석같은 이야기는 끝이 없다. 죽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했던 방구석에서 나온 것만으로도 좋다는 7월의 경진, 좋을 때 제일 크게 웃고 슬플 때 제일 크게 우는 8월의 소민, 배곯고 살았던 때가 길었다며 동료의 밥을 꼭 챙기는 9월의 태중, 자유를 가져야 꿈이 생긴다고 말하는 10월의 동림, 어디서든 혼자 있기 싫다며 복치고 노래하고 수다 떠는 노들을 사랑한다는 11월의 애경, 노들이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자랑하는 교장 12월의 경석.

이들 모두가 내게는 각별한 친구다. 내게는 이 열두 친구 외에 또 열두 친구가 있고, 다시 또 열두 친구가 있다. 나의 1년은 이들과 보내는 12개월이다. 며칠 전 야학 학생들의 급식비 마련을 위해 탁상용 달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개를 가웃했다. 스마트폰에 일정관리 앱이 넘쳐나는 때에 누가 그런 걸 찾겠냐고. 하지만 달력에 친구들 사연을 하나씩 옮겨 담으면서 나는 우리 달력에 채워야 할 것이 일정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누가 삶의 진주 알갱이 하나 없이 일정만 가득한 날들을 찾겠는가. 게다가 이 달력은 노들에서의 내 소중한 배움을 담고 있다. 어떻게든 자율적인 연구자로 살아보려 했던 내게는 자립이야말로 중요한 가치였다. 그러나 뒤늦게 알게 되었다. 자립의 환상이 우리 삶의 상호존성을 가린다는 것을. 노들의 친구들은 자율적인 삶이란 오히려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하나다. 누구에게 우리의 발우를 의탁할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그리고 결심했다. 당신에게 탁발해보기로(<https://www.tumblr.com/nodcalendar>). 우리의 자율적 삶을 위해.

\* 이 글은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





# 1월

## 김명학



저는 노들이 참 좋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집회에 나가 목청껏 외치고요, 우리 요구를 알리는 것, 힘이 나고 좋습니다. 노들야학이요? 여기에는 뜻이 있고요. 보람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의 냄새가 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냄새요.

김명학님은 1993년 노들야학이 개교하고 몇 달 뒤부터 야학을 다닌 최장수 학생입니다. 지금은 한소리반 학생이면서 야학 상근 활동가입니다. 야학의 학생, 교사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이 기대는 큰 형님 같은 분입니다.





1월 김명학

2014 겨울 <노들바람> 103호 中

## 명학 자립했습니다

김명학

노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24일 명학이 4년여 동안 기거했던 평원재를 떠나 연건동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겨 진정으로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실감이 안 나는군요. 이제 완전히 홀로 자립을 시작하는 즈음, 두 어깨가 무겁고 더 크게 의무감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홀로의 자립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때론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한 반면에 평원재처럼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서로 오순도순 생활하는 것도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립생활,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자립생활을 하다보면 몸에 익숙해지리라 믿고 홀로 진정한 자립생활을 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은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소중한 가족도 함께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홀로 왔다가 홀로 떠나는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지면을 통해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자립하는 데 가족들이 살림살이도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대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자립생활을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길...

1월 김명학

2017 봄 <노들바람> 110호 中

## 15회 정태수상 수상자 김명학 동지!

박승하

장애해방열사단에서 활동합니다.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에서는 매년 3월을 여는 첫 행사로 3월 1일 정태수 열사의 추모제를 치르고, 정태수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15년째 매년 시상하고 있으며, 열사의 삶과 숭고한 정신을 모범적이고 헌신적으로 이어받아 활동한 동지에게 수여한다. 선명성, 투쟁성, 조직적 운동성, 활동지속성, 장애인운동에서의 공적, 총 5가지의 기본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10여 명의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장애해방열사단의 박김영희 대표가 1회 정태수상 수상자로 선정되고 15년이 지난 지금, 10명의 개인과 5개의 단체(10회 시상식에서는 두 단체가 수상함)가 정태수상을 수상했다.

모두들 알겠지만, 정태수상 15회 수상자인 명학이형의 작년 활동을 가만히 되뇌어 보면 참 다

양한 현장을 묵묵하게 지켰던 것 같다. 고장님처럼 현장에서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노들야학 연대사업팀장으로 활동하며 한광호 열사 장례투쟁 현장에서 유성 동지들과 함께, 삼성 본사 앞에서 반올림 동지들과 함께, 성소수자 동지들과 함께, 우장창창 등 맘상모 동지들과 함께, 그리고 세월호 투쟁/박근혜 탄핵 집회 등 각 시국집회에 많은 연대 활동을 해왔다. 물론 연대투쟁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도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어떤 박센 투쟁이든, 어떤 비택이든, 어떤 기자회견이든, 어떤 1인 시위든, 어떤 입법 투쟁이든 가장 먼저 가서 동지들을 기다리며 투쟁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도 아마 가장 많이 지킨 동지일 것이다.

작년, 아니 최근 몇 년간 명학이형의 활동이 이 작은 지면에 나열하기엔 한없이 부족하다. 그

만큼 가장 앞서서 활동한 모범적인 활동가임엔 분명하다. 작년 명학이형과 함께 투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장애인 생존권 예산 투쟁을 하며 종로종합복지관 옥상을 점거했을 때였다. 7박 8일 동안 점거한 투쟁이었는데 쪽잠을 자며, 햇볕을 피해가며, 청와대를 향해 대형 현수막을 내리고, 대시민 선전전을 하고, 비택을 하고, 전국 결의대회를 하는 박센 투쟁이었다. 각 단위별, 개인별로 하루, 이틀씩 야간사수를 하는 상황에서 명학이형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7박을 꼬박 농성장에서 자는 것을 자청하며 투쟁했다. 몸 좀 챙기며 집에서 주무시고 오라고 걱정하는 동지들의 말에 “괜찮아” 한마디를 내뱉고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꼬박 일주일간 투쟁에 전념했다. 본인은 투쟁기간 내내 노숙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동지들의 몸이 괜찮은지 살폈다.

**“깨끗한 공기는 눈에 잘 안 된다.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제일 소중한다.”**

**“얼마나 오래 변치 않고 활동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김명학 동지는 집회 현장에서 변치 않고 가장 많이 봤던 동지이다.”**

정태수상 심사위원회에 한 심사위원의 심사평이다.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동지들과 항상 투쟁현장을 지킨 명학이형, 그 맑은 웃음에서 드러나는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 아름드리나무처럼 항상 현장에

있는 동지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이 상을 받지 않았나 싶다. 명학이형! 노들야학의 큰형님, 장애인운동의 큰형님인 명학이형이 15회 정태수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기분이 좋다. 동지들과 함께 서로 힘주며 항상 가열차게 끝까지 투쟁했으면 좋겠다.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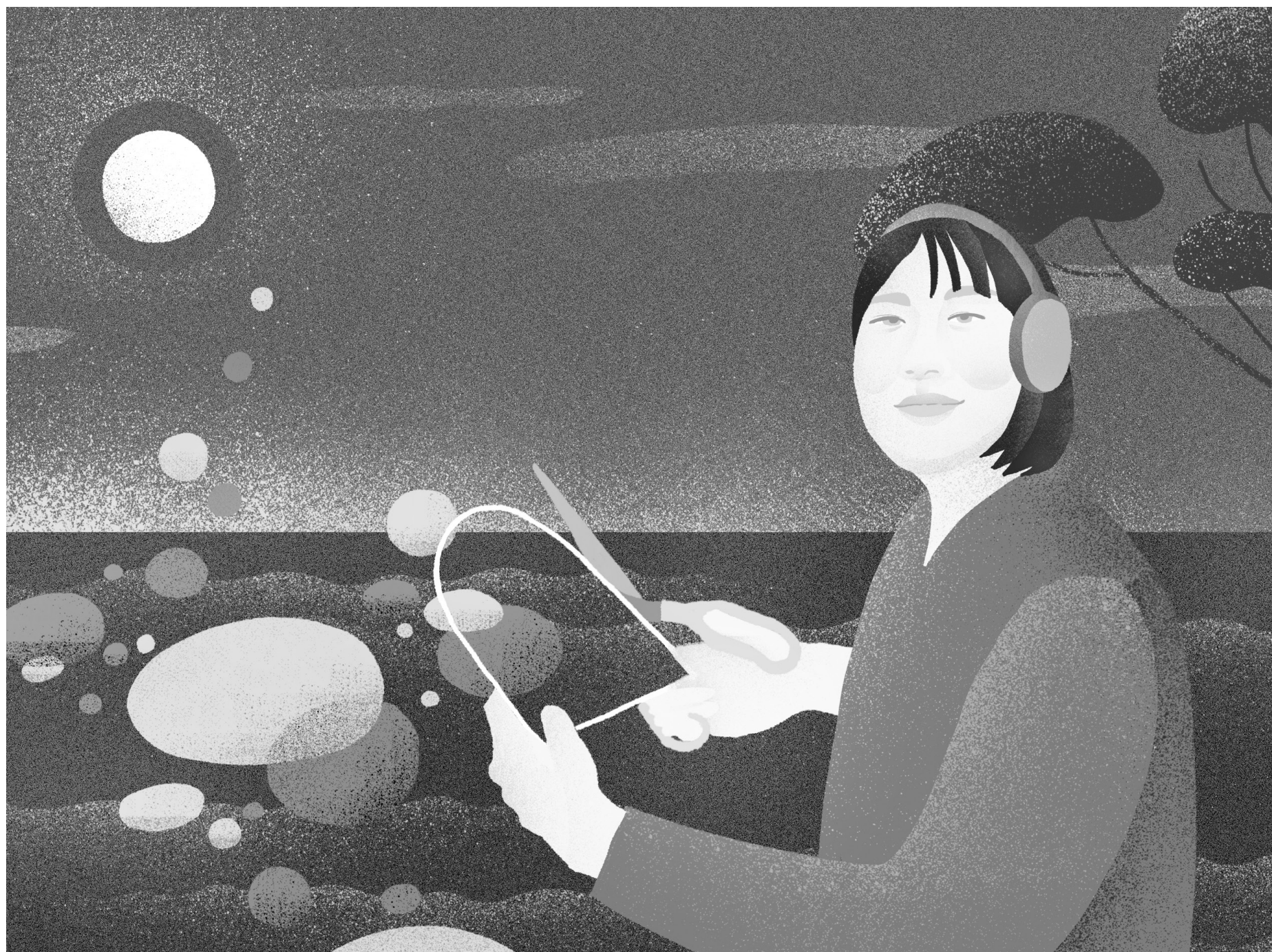
# 2월

## 김경남



야학 복도를 걸으면 이상하게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사람들 만나면 반가워요. 그래서 웃어요. 그러면 사람들도 따라 웃어요. 노래가 좋아요. 노래가 와서 내 몸을 흔들어요. 몸이 피곤해서 이번에 음악수업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래도 쿵쿵 소리 나면 그 소리를 꺼안아 주고 싶어요. 춤추는 건 힘든데 음악은 좋아요. 종 같은 거 있잖아요. 나, 무당처럼 그것 막 흔들어요. 글자 공부도 해요. 야학 오기 전에 이름은 썼어요. 근데 글자들은 너무 많아요. 배워도 새로운 글자가 계속 나와요. 아는 글자는 반가운데 모르는 글자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나는 글자를 가위로 오려내요. 동그랗게. 그리고는 예쁜 종이목걸이랑 딱지 만들죠.

김경남님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어릴 때 길을 잃어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5년 동안 살다가 친한 언니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야학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물건도 사고, 지하철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자립생활을 알려주마]

## 꿈도 꾸지 못했을 지금, 자유

장희영

시설에서 나와 장애인문화예술관에서 연극배우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며 인권강사와 동료상담가로 열심히 살고 있다. 요즘은 그동안 책꽂이에 장식용으로 꽂아두었던 책을 하나씩 읽고 있는 중이다. (가끔 즐기기도 하고 책 한 장 넘기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터벅터벅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우리 경남언니 발소리다. 현관 버튼 키를 쿡 쿡 누르는 소리와 함께 비리릭 문이 열리고 현관 안으로 들어와서는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듯 크게 웃는다.

지금쯤 밤 9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다. 경남언니는 6년째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다. 게다가 반에서 열성적으로 반장 역할을 수행 중이라 한다. (멋져 부러) 나에게도 반장님이라고 꼬박 꼬박 불러 달라고 한다. 반장님의 위치는 책임감이 막중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365일 결석 한 번 안 하는 반장님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룸메이트 커플이다. 요양원에서 만나 지금까지 19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지역사회로 나온 지, 2년 만에 국민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서울에서 공기 좋기로 유명한 길음 뉴타운에 입주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설 밖으로 나올 때 걱정됐던 집 문제가 말끔히 해결 되었다. 길음역에서 집으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지곤 하지만 그나마 다른 곳에 비하면 교통편이 좋아 경남언니가 야학에 다니기엔 안성맞춤인 것 같다. 시설에 살고 있다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마음껏 다닌다는 건 꿈도 못 꿀 텐데...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밤늦게까지 tv도 시청하고 늦잠도 자고 언제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으니, 그야말로 땡잡았다고 할 수 있다. 시설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좋고 감사한 마음이다.

과거에 우리처럼 지금도 시설에서 자유를 그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모두 지역사회로 나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 경남 이야기

2019년 달력을 준비하며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정리 김유미

언니 좋아하는 달이 있어요? 몇 월 달이야?  
어. 네. 보름달.

언니 좋아하는 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 있잖아요. 그거 중에.  
가을.

언니 올해 몇 살이에요?  
나는 마흔 둘.

내년엔 몇 살이에요?  
내년에는 글썸. 내년에는 나이를 바꿔봐야 할 것 같애.

나이는 언니가 바꾸는 거야?  
아니 여기 선생님 중에서 바꿔줘야 해. 나는 유미선생님이 바뀌셨으면 좋겠어 내년에 내 나이.  
어. 내가 내 나이 바꿀 때 언니 것도 바꿔줄게.  
똑같이 바꾸면 되니까. 내년에 똑같이 한 살씩 더 먹어요.

모르는 사람이 노들야학이 뭐하는 곳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줄 거예요?

음.. 모르는 사람이. 글썸 나는 . 만나 봐야. 알아. 뭐라고 할지.

그러면 언니 교회 사람이 물어보면?  
어. 요새 야학 다니고 그래요. 얘기도 하고. 야학에서 글씨를 배워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야학에서 좋아하는 수업 있어요?  
국어, 과학, 수학 4가지.

아 국어, 과학, 수학 3가지!  
네.

국어는 누구랑 공부해요?  
성호 선생님. 새로 나오는 글자들이 좋아요. 과학 중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배우고, 음 저기. 저번주 화요일 날에는 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수학은 저기 하나 둘 셋 넷 그거 하고. 세 보고. 세 봤는데 다시 또 세보래. 수학 선생님이. 몰르니까. 하하. 또 세라 그러니까 지루하고.



교실에서 맨날 만드는 거는 뭐예요?

어 딱지도 만들기도 하고. 동그랗게 하는 거. 치는 딱지도 있고, 퐁그란 딱지도 있고 그래요. 딱지 만들어서 정숙언니도 포장해주고, 음 또 장기형님도 드리고. 집에 많다고 다 버렸대, 할보 선생님이.

딱지를 좋아해서 만드는 거예요?

딱지가... 종이로 막 동그랗게 해서 오려갖고. 딱지가 예뻐서.

목걸이는 요즘 안 만들어요?

전에 목걸이는 이제 끝났어요. 줄 사오는 사람이 고만 뒤서. 일요일 선생님이가.

야학에 매일 오잖아요. 야학에 오는 거 좋아요?

예. 친구가 많아서. 청솔1반 친구들이 많아서.

야학에는 언제 처음 왔어요?

글쎄 우리가 오래 돼갖고. 기억이 안 나.

음악수업, 춤 수업도 좋아하시죠?

전에 했었는데 내가 막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 고만둔다 그랬거든. 아프리카댄스하고 방송댄스하고 커피수업하고. 이거 세 개만 고만둔다고 그랬거든.

왜요?

그걸 막 맨날 하니까 몸이 막 피곤한 거야.

전에 방송댄스도 오래했잖아요?

내가 원해선 선생님한테도 맨날 얘기하거든. 조금 쉬고 쉬다가 하면 안 되냐고 하거든. 조금 쉬다 하고 조금 쉬다 하고 그러니까 몸이 막 피곤하고 그렇지.

그러면 언니는 음악이 좋은 거예요? 춤이 좋은 거예요?

음악이요. 음악대 수업이 좋은 거고. 음악반에서는 노래 연습하고. 종 같은 거 막 흔들어요. 무당처럼 이렇게.

야학 말고 다른 곳은 안 가요?

옛날에 너른마당에 수요일 수업했었는데. 이제는 안 한대. 수요일 하는 건 끝났고 화요일 하는 것만 있대. 화요일 오렸는데 나는 우리 야학에 수업 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

야학 수업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좋아. 수업.

야학에서 모꼬지 갔을 때는 어땠어요?

가서 막 바다도 구경하고. 가서 물놀이도 하고. 물에 들어갈 때는 저거 타고 들어가야 돼. 배같이 생긴 거. 그거 타고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면 빠져. 나는 바닷물이 무서워서.

시설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노는 사람도 있고. 놀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

만약에 시설에 돌아가야 한다면 어떤 거 같아요?

누가 그래?

아... 가라는 게 아니라 가야 하면 어떤 것 같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안 되지.

시설에선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네.

야학에서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저기. 일 하고 싶고. 옛날에 지난주에 빵 공장 갔었는데 거기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 홍지연 선생님하고 상담선생님하고. 저기 강동구.

월급도 준대요?

거기 가면 다 준대요. 근데 언제가 될지도 몰라요.

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검장사.

누구한테?

음 글쎄. 친구들한테 이렇게 검 팔고.

한 개 얼마에 팔 건데?

이만원씩.

안에 있는 거 한 개에?

이만원.

돈 벌어서 뭐하려고

월급 주게.

누구한테

나한테.

언니 이름 쓰는 건 언제 배웠어요?

옛날에 야학 오기 전에.

새로 배운 글자 있어요?

과학수업에서 이제는 날 보고 새로 나오는 거 배우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이제는 새로 나온 거 배울 거예요.

가끔 제 이름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그... 선생님 이름 보고 그렇게 해서 보내거든. 이름 따라서 쓰고 그러거든. 휴대폰으로.

글자를 많이 배운 거네?

아는 글자는 좋아. 빨간 거. 저런 색 붙이는 거.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트로트. 어... 내 나이가 어때서. 어. 소양강 처녀. 우리 그 명단 뽑아 와야 되겠어. 소양강 처녀 그 노래를 부르려면 명단을 뽑아 와야 돼.

휴대폰에 노래 다 들어있는 거죠?

네. 노래는 승천 선생님이 막 넣어주나봐.

노래도 불러요?

저기 마이크가 있으면 저기다가 있는 거. 그걸 막 배우고 그래요.

노래방도 가요?

노래방은요. 지난주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서 우리

반 식구들만 갔어요.

언니 놀러 가고 싶은 데 있어요?

저기... 뭐지. 인천 바닷가.

가본 적 있어?

해보포구는 가봤는데요. 넓은 바다는 안 가봤어요.

인천에 있는 넓은 바다 가고 싶은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도 하고.

재밌겠다.





# 3월 정수연



“야~야~” 사람들을 불러 세웁니다.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면 “아니야~”하고 웃습니다. 화낼 법도 한데 내가 웃으니 그 사람도 웃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많지 않아요. ‘야’, ‘응’, ‘아니야’. 이 한마디 말도 온 몸에 힘을 잔뜩 준 뒤에야 나올 수 있지요. 한 마디를 뱉고 나면 휠체어에 기댄 등이 땀으로 흥뻑 젖습니다. 한 마디 소리를 내고는 나머지 모든 걸 눈으로 말합니다. 내 생각을 모두 눈에 실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야학 사람들은 내 눈을 읽습니다.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눈으로 듣고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공부도 배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입니다. 1, 2, 3, 4 숫자 읽기, 더하기 빼기를 연습하는 게 재밌습니다. 숫자는 참 신기합니다.

정수연님은 중증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세상에 너무 일찍 나온 탓에 아기였을 때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이십대 후반에 야학에 와서, 엄마 아빠와 함께 야학을 십년 넘게 다녔습니다. 아빠와 다니는 것이 지금도 좋지만 가끔은 활동지원사와 함께 독립하는 꿈을 꾀보기도 합니다.





## 딸과 아버지의 공동투쟁

정종훈·정수연

노들야학에 함께 다닙니다.

### 종훈의 이야기

노들장애인야학에 다니는 수연과 수연의 아버지 정종훈입니다. 제 딸 수연이가 조산으로 나왔어요. 낳으니까 몸무게가 0.7kg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하는데... 35년 전이었지요. 인큐베이터 비용이 하루에 4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넣었지요. 그때만 생각하면 많이 미안합니다.

현재 제 딸 이름으로 나오는 급여는 장애수당으로 한 달에 14만 원씩 나오는 것이 다입니다. 수연이 이름으로 수급 신청은 해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다 큰 자식을 계속 부모가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수급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와 수연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자녀로 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수급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안 그럴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식하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수연이가 수급자가 되어야 제가 눈을 감아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수연이는 지금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만 자립생활을 하는 꿈을 꾸니다. 지금처럼 맨날 같이 다니니 떨어져서 살 수 있느냐고 누군가는 묻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도 수연이도 알고 있어요.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겁니다. 항상 부모들하고 살 수 없다

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깐요.

### 수연의 이야기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어머니는 오래 전에 위암 수술을 하였고 아버지는 최근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위암 판정이 날 때도 힘이 들었지만 아버지 암 판정을 듣고 더욱 마음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수술하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시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짐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습니다.

저도 수급자가 되고 싶어요. 수급자가 되면 무

엇이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하고 지금처럼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부모님이 나로 인해 너무 많은 짐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 짜증도 내고 하니까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저도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급자가 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부양의무제가 폐지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 이 글은 2014년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 문제 증언 대회' 발표 문입니다.



## 수연 언니의 자립체험기

### 그리고 박임당의 활동보조 분투기

≡≡≡ 박임당

노들장애인아학 교사. 노들의 1년 살이를 알 듯 말 듯 한 사람

#### 생존, 그것이 단연코 문제로다

지난 2016년 6월 20일부터 4박 5일 간 노들 야학 정수연 학생의 자립생활 체험이 진행되었다. 사실 수연 언니의 자립 체험을 계획하기 전에는 나에게도 많은 꿈이 있었다. 수연언니와도 사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부모님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주변의 자립 사례들을 듣고 싶기도 했다. 정말 찰진 시간을 짜보리라 지윤(수연 언니의 또 다른 활보이자 노들야학의 교사)과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자립 체험 날은 다가오고 있었고,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윤과 나는 부랴부랴 회의를 꾸리고, 지윤이가 어머니를 만나 언니가 어떻게 4박 5일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

우를 전수받는 선에서 아주 아주 최소한의 준비만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변명을 하자면 우리는 주거를 함께 하며 활동보조를 해본 적은 없는 비숙련 활동보조였고, 또 따로 널만한 시간의 부재로 인해 수연 언니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언니가 4월부터 기다려온 자립 체험을 미룰 수는 없었고,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체험이라는 건 영원히 시작될 수 없는 것 일거야'라고 생각하며 애써 스스로를 자위했다.

언니는 언니대로 합법적으로 집을 나온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붕붕 떠 있는 상태인 것 같았다. ㅎㅎ (수연 언니는 아니라고 부정함.) 우선 야학에서 낮 수업과 저녁 수업 듣는 일정은 고정시켜놓고,

그 외의 밤 활동에 대해 주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씻는 것이 가장 큰일이었다. 나와 지윤은 언니가 샤워를 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불안해 하다가 샤워를 마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록 가려진 몸집의 언니였지만, 욕실이 방과 멀어서 씻을 때 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학의 여성 상근자들이 돌아가며 방문해 함께 해주었다. 이에 대해 언니의 의사를 확인해보았는데, 수연 언니는 진짜 쿨했다. '볼 테면 보라지~' 자유의 기운을 만끽해서였는지(나중에 물어보니 안 부끄럽고 좋았다고 함), 어쨌든 그런 점이 멋있었다.

감동적인 몇 장면도 있었다. 수연 언니를 친동생처럼 아끼는 상연이 형은 체험 첫날 언니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그러고는 나중에 따로 언니를 불러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다하고 살라며 애절한 맘을 전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통닭까지 사들여 보냈다.

어머니는 언니가 가족 아닌 누군가와 외출할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전화기에 손이 가던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머니는 체험 첫날 전화를 꼭 참으시고는 다음날 야학에 멀쩡하게 나온 언

니를 보고 티는 안냈지만 무척이나 안도했다고 전했다. 아버님은 마침 신경 계통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언니를 일주일이나 못 보게 되었다. 그러다가 영상 통화를 통해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폭풍 눈물을 흘리셨다. 지켜보는 우리도 눈물바다. 그래도 씩씩한 정수연, 진짜 멋있었다.

#### 언니만 살지 말고, 나도 같이 살자ㅠ

그러나 어찌 좋았던 것만 있으랴. 이 문제를 빌어 이용자 정수연의 행태를 날날이 고발하겠다. 음하하. 우선 스케줄 조정 건. 앞에서 말했듯 언니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샤워를 아침에 할 것인지 저녁에 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정해서 상근자들과 스케줄을 다 맞추어 놔는데, 돌연 술을 자시겠다고 한다. 아, 이럴 수가. 다시 연락을 돌려서 시간 약속을 잡거나 취소하거나, 언니와 협상을 한다. 아, 그 다음 날도 언니는 술 약속이 잡혔다. 또 상근자들을 만나서 시간을 조정한다. 나는 미숙한 활동보조인, 하루 종일 바짝 긴장하고 있어서 너무 피곤하다. 술자리에 있기 힘들다. 그런데 나는 활동보조인. 술자리에 간다. 아 피곤해. 왜 계획을 자꾸만 바꾸는 것인가 나의 이용자여.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다. 나에게서는 활동보조인이라는 아이디어가 있었다. '활보는 전지전능해야 한다!' 나는 정수연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야. 나는 정수연과 한 번도 갈등을 겪지 않을 거야. 나는 신체 활동에 능하니까 수연을 잘 보필할 수 있어. 나는 정수연의 인권을 존중할거야. 그러나 인간은 육체의 동물이지만 정신의 동물이기도. 저런 생각을 갖고 활동보조를 하다 보니 내 인권은, 내 멘탈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어떤 활동보조인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평상시에도 자주 생각한다. 활동보조인 혹은 조력자로서 나는 얼마만큼의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자립에 힘이 되는가? 오히려 나의 능숙함이 그 사람의 자립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고민들이 증폭되는 기간이었다.

#### 정수연의 그 다음은?

준비해보자. 아니 준비해 보겠다. 그 과정에서 질문들은 조금씩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립을 준비하는 일은 적절한 활동보조인을 구하고 여러 사람과의 소통 과정과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 일이지만 한 것은 아니다. 자립인으로서의 정수연, 그리고 활동보조인으로서의 박임당의 정체성과 성장을 찾아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적 토대이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와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수급권 혹은 노동의 문제, 이 모든 지점에 싸움터가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아찔하다. (부디 다음번엔 정수연 자립기로 만나 볼 수 있기를...!)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토대이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와  
생활비를 위해  
필요한 수급권 혹은  
노동의 문제

### 정수연 자립체험 본인 막간 인터뷰

**임당** 술 매일 마셔보니 어때?  
**수연** 힘들다.

**임당** 치킨도 매일 먹었잖아, 어땠어?  
**수연** 좋았다.

**임당** 10분 만에 고가의 옷을 획 골라서 샀잖아, 좋았어?  
**수연** 응!

**임당** 근데, 스님 옷 같다고 엄청 놀림 받았잖아.ㅋ  
**수연** ㅋㅋ

**임당** 언니가 하루 스케줄을 마음대로 정해보는 건 어땠어? 그리고 초반에 정했다가 중간 중간 계속 바꾸기도 했었잖아.  
**수연** 좋아.

**임당** 근데 난 엄청 피곤했다. 언니가 일정 바꾸면 사람들 연락 돌려서 다 조율하고... 근데 사람 마음은 원래 다 그런 거잖아? 이리기로 했다가 저러기도 하고. 그건 참 당연한건데...

**임당** 언니가 야한 영화 꼭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아가씨」 봤잖아. (여러분, 제가 썼습니다. 물론 할인은 정수연 찬스.)

**수연** 너무 안 야했다.

**임당** 언니가 나 순이 여사(수연 언니 어머니)보다 밥 잘한다고 그랬지?  
**수연** 응!

**임당** 어머니가 그 뒤로 자꾸 나한테 급식 메뉴 상담하자 그러다...

**임당** 평원재 사람들이랑 몇 번 어울렸잖아. 어때? 같이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수연** 응! 좋아.

**임당** 활동보조인이랑 같이 사는 건 어땠어? 앞으로 자립하게 되면 가족이 아니라 활동보조인이랑 사는 거잖아?

**수연:** 살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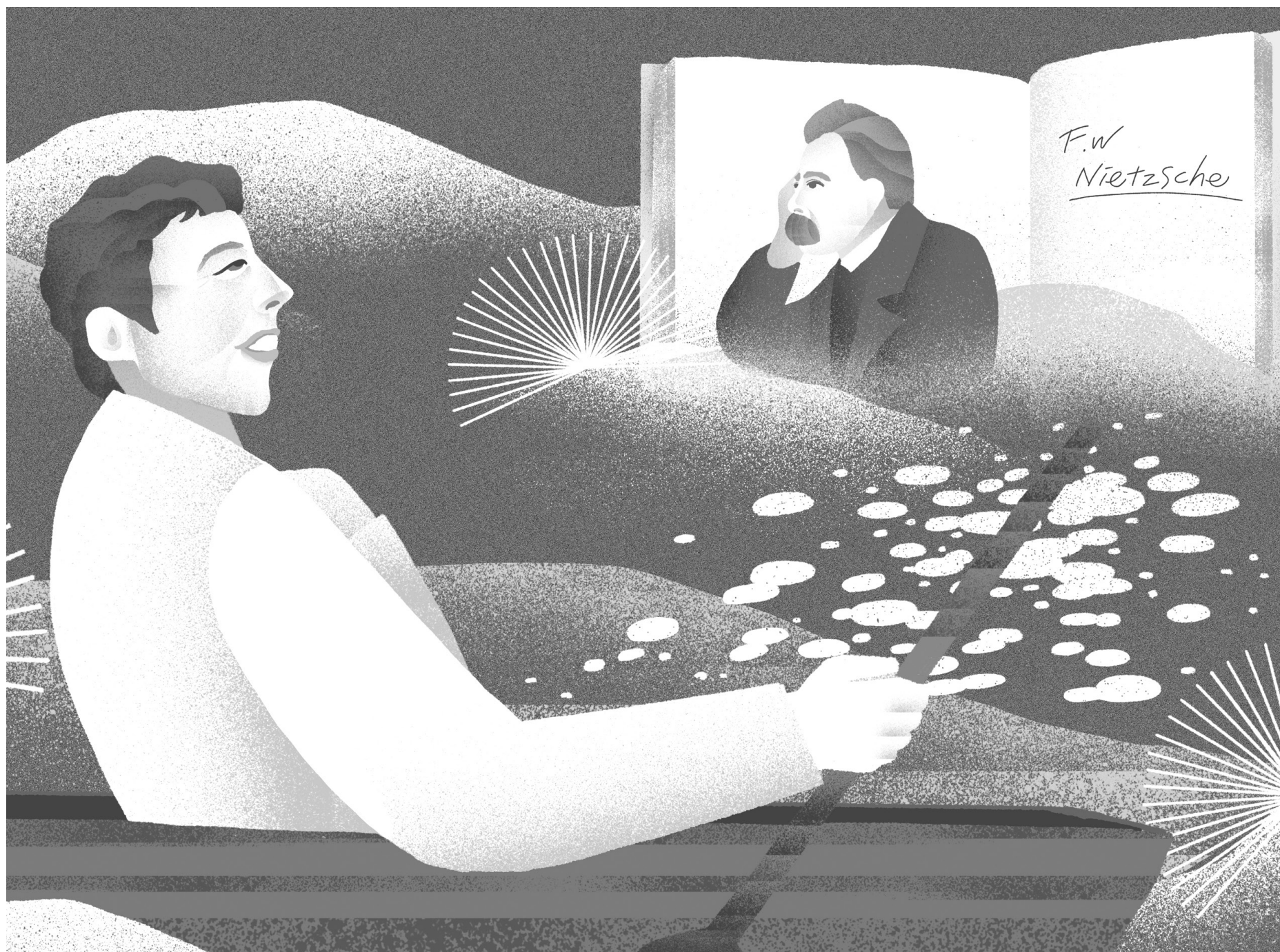
# 4월

## 김호식



카프카의 '빨간 피터'처럼 나도 총을 두 방 맞았어  
요. 두 방 다 가슴에 맞았지요. 한 방은 내게 꼴통이라  
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다른 장애인들이랑 달리 고집  
세다고. 또 한 방은 항상 큰 소리로 웃는다고 날아온 건  
데요. 장애인인 주제에 성격도 안 좋고 웃음소리도 거  
슬린다는 거죠. 근데 제발 총 함부로 쏘면서 사람 괴롭  
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인문학 공부하면서 느낀 거  
많아요. 전에는, 니들이 싫다면 나도 혼자 살면 되지 그  
랬어요. 잘 먹고 잘 살든, 못 먹고 못 살든 무슨 상관이  
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걸 느껴요. 아직까지는 구체  
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없는데요. 어울린다는 것  
에 대해서는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당당하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김호식 님. 고인은 뇌병변장  
애인으로 2001년부터 노들장애인야학에서 공부하고 생활  
했습니다. 야학 이전에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그는  
야학에서 철학과 문학, 연극에 심취했습니다. 그는 특히 철  
학자 니체를 좋아했습니다. 작가의 꿈을 꾸었던 고인은 몇  
편의 글을 남겼고, 몇 편의 연극에서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교육 강사로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노들의 벗, 김호식을 보내며]

##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사람, 김호식

노규호

철학반 교사로 노들장애인야학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혐오담론 세미나에 늦게나마 참여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11년 노들야학 인문학 세미나에서 형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2012년, 13년, 14년 주말에 활동보조로 형을 만났다. 간혹 빼먹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 형을 만나러 갔다. 형을 만났던 그 주말에 “나는 공부하고 싶다”는 말을 거의 매일같이 들었다.

책을 4~5시간 읽고 나면 형은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형도 나도 이불 위로 뵈었다. 형은 소주를 땀다. 그리고 진지하게 하는 말이 “니체, 애가 진짜 골 때리는 애야. 애가”, “이것도 좀 읽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되냐”였다. 공부하고 싶다는 말은 술 먹자고 하는 말 만큼 자주 들었다. 공부하지 못한 아쉬움의 소리도 자주 들었다. “공부를 해야지.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일찍이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거야.”, “(복지관에서는) 진도 못 따라오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어떤 날은 “책 좀 읽자”며 책 읽기가 소홀해졌다고 나를 다그친 날이 있었다. 또 한 번은 같이 책 읽자고 높은 해방촌 고개를 휠체어를 타고 땀 흘리며 넘어오기도 했다. 야학의 수업 시간 1시간 전에 만나 미리 책을 읽기도 했다. 물론 매일 책만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술에 밀린 날도 있었다. 그러나 힘을 냈던 날들이 쌓여 니체나 루쉰의 말을 형의 입에서 듣던 날, 나는 공부든 무슨 일이든 정해진 능력 대신 의욕과 작은 용기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형은 또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말로 밖에 못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있었을 때 할머니들이 모여 나는 수다를 이야기로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도 했다. 그렇게 형을 만나는 한 주, 한 주 “공부하고 싶다”, “이야기 쓰고 싶다”는 주문을 들었다. 그 주문들, 발걸음이 큰 선물로 남아 있다고 형의 귀에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전하고 싶다.

생각하면 같이 지내며 지치고 회의하던 날들도 있었다. 그러다가도 문득 웃음 짓던 날들이 있었다. 평소 1시간을 못 넘기던 글 쓰던 시간이 월드쿤을 먹고 4시간 넘게 집중했던 날, 못 할 것 같았던 니체의 구절 암기를 주말마다 연습해 연극으로 올렸던 날, 장애를 낮게 해준다고 하던 교회 단식원에서 안 좋았던 기억을 토로하며 스피노자에 대해 2시간 넘게 같이 이야기한 날, 야학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희망버스를 타고 가서 시위하다 뒤로 빠져 컵라면에 소주 먹던 날, 노동에 대해, 노동문제는 무엇인지 토론했던 날, 형이 내가 만든 퍼포먼스에 막간 출현하려고 비 쫓딱 맞고 온 날, 둘이 소주 먹고 누워 한 줄 시 짓기를 1시간 넘게 했던 날, 무슨 일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잔뜩 우울했을 때 형이 술 사줬던 날.

언젠가부터 내 입술은 형을 만나는 수유역에 내리면 힘이 들어갔다. “와봐라”, “그렇지 뭐!” 하는 배짱 같은 것도 나타났다. 나는 그 이유가 동네가 으스스한 탓인가 싶었다. 이제 보니 그 표정은 형한테서 왔다. “해보는 거지, 뭐. 내가 한 두 번 해보냐.”, “뭘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사냐? 그렇게 신경 쓰면 피곤해서 못 살어. 내 몸 잘났

다 하면서 사는 거지. 뭐.”, “내가 대담한 것 같이 보여도 엄청 소심하다. 누나도 시집갔겠다. 야학 다니면서 나도 집 나와 살아볼 수 있겠지. 뭐 그 래 본거지.”, “저기요, 저기요, 이것 좀 올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음식은 흘리면 닦아먹으면 돼. 근데 왜 내가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만 뉘야지 되냐.”

형을 만나러 가는 길이면 내가 좋아하던 형의 일부, 그 역세면서도 환히 웃던 표정이 옮겨왔던 것 같다.

호식이형! 형이 남긴 그 표정들 이렇게 있네요. 함께 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동화 100편 쓰기 남은 97편은 꼭 완성해야 돼요!!

[노들의 벗, 김호식을 보내며]

##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

### 노들야학 학생 김호식의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카프카 작) 패러디 작품

지난 4월 7일 새벽 1시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인 김호식 씨(44세)가 홀로 집에 있다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뇌병변장애인으로 2001년부터 복지관에 같이 다니던 친구의 소개로 노들장애인야학에 입학해서 최근까지 노들야학에서 많은 일상을 공유해 왔습니다. 야학에 다니기 전까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그는 노들야학 활동을 통해 철학과 연극에 관심을 쏟고, 장애인권교육강사로도 활동하며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노들 인문학 세미나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써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고인의 단편 작품을 소개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드리는 보고」라는 제목의 이 글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를 패러디 한 것으로, 글 속에는 고인의 생애와 사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3년 5월에 쓰여진 이 글은 노들야학 교사 노규호 씨와 함께 카프카의 작품을 읽고 이를 다시쓰기 하면서 만들어진 작품으로, 4월 11일에 열린 김호식 학생 추모식에서도 낭독되었습니다.

고맙하신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장애인으로 살아온 저의 인생담을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들 덕에 가능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들이 원하는 장애인에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착한 장애인으로 살았다면 여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고집이 있었으니까 여까지 왔지 고집이 없었다면은 여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집에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계속해서 주는 거나 받아먹고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고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공부하겠다는 고집으로 여까지 왔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다들 늙고 병이 듭니다. 또 어릴 적에는 마찬가지로 부모가 돌봐줘야 합니다. 늙거나 어려서가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서로가 돌봐줘야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장애인인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당신들이 말하는 장애인의 본능은 당신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만들어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무슨 보고를 하는 것이 꽤나 우스운 일처럼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은 쓸쓸한 마음으로 그러나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당신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으로 내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고통을 참고 무언가에 다가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촌놈입니다. 그 시골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게 하는 총을 썼습니다. 그 총은 양복을 차려입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품 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그 두려움 같은 것에 맞은 놈입니다. 두 방을 맞았는데 두 방 다 가슴에 맞았습니다. 한 방을 맞고 나에게는 꼴통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착한 장애인들과 오로지 고집스럽다는 것으로만 구별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알도 가슴에 맞았습니다. 제가 거침없이 웃게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총을 썼습니다. 그들은 내가 웃을 때마다 아직도 나에게 좋지 못한 습성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웃긴 것을 두고 참는 습성이 좋은 것 인줄 모르겠습니다. 제발 총을 쏘는 그들의 변태 같은 습성이 내 웃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에 두 방 맞은 이후 제가 깨어난 곳은 귀찮이었습니다. 이 무렵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허탈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열아홉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해서 복지관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좋았다면은 술 먹고 노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공부 진도가 안나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오면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 마시며 놀다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얽혀들어갔습니다. 1년 정도 다녔는데 내가 공부 진도가 안나가니까 복지관에서는 다른 진도 잘 나가는 애들만 뽑아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나에게 꺾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다시 이 꺾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꺾은 돈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어떤 복지관에 가면 사람들을 가두어놓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관리 같은 것을 해서 복지관으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출석체크만 하고 가라고 합니다. 복지관은 그렇게 돈을 받고 함께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때 올림픽 공원에 애들을 우르르 풀어놓고 밥 먹고 놀다가 버스를 태우고 복지관에 와서 풀어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는데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았을 때 저는 다시 천사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너의 발가락 사이의 살을 핏물어보아라. 그래 너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거다. 쇠창살이 너를 거의 두 동강 낼 때까지, 네 등을 거기 대고 눌러라. 그래도 너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거다. 그렇게 저에게도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는 친구를 따라 야학에 갔습니다. 그때 나에게서는 출구가 친구였습니다.

친구를 따라가며 제가 바랬던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주 곡에서 한 명이 그네에 뛰어올라, 그네를 구르고, 도약하고, 상대방의 품안으로 날아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 역시 인간의 자유구나 인간들의 자유란 누군가의 즐거움을 위해

저렇게까지 해야하는거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자유가 있다면 서커스 단원처럼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유가 정말 있으면 저렇게까지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인간들은 자유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자기 뜻대로 남을 다루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들은 남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엄청나게 이루어야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우월한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함부로 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함부로 하는 그 함부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장애인 시설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보는 남자를 여자가 닦아준다든지 그건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나 사회봉사 하러 오는 사람들은 우월감이나 홍보하려고 그 짓을 합니다. 인간들은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두는 것에서 자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관계라고 보자면은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것들을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나왔을 때 야학에 다녔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데모나 시위나 그런 거를 참여하면서 위로와 이해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그랬던 것이 특히 좋았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은 있었습니다. 차별적이지 않는다는 것, 자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잘 안되고 있던 한데 마음은 남아있습니다. 또 시위나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기는 하지만 왜 싸우는 지 알 수 있게끔 해준 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6년 전에 따로 집을 마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싸우고 안 볼 것처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대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저는 조그만 일에 잘 놀라는 성격입니다.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 많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형에 대해선 나를 두들겨 패고 그런 것이 있어서 약간 반감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크게 웃는다고 때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리고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개겼습니다. 아니, 개긴 것까진 아니고 누나도 시집간 마당에 뭐 내가 집을 나와서 살지 못하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엄마가 언제한번 나가 살 집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그때 집을 나왔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것만도 아닌데 나와서 살아보니 까는 살았습니다. 그때는 활동보조인도 없었고 그랬으니까는 자립할 여건도 잘 안 갖춰져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활동보조가 생기고 하나 하나 나아졌습니다. 생활이라고 조금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살짝 살짝 건드려보는 수준인데 그런 수준에서 뭔가를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책 읽고, 만드는 모임도 같이 하고, 복지관도 나가서 운동도 함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출구라고 해야지되나? 나는 출구의 열쇠를 얻고 싶습니다.

자유가 남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었다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출구들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어먹는 것, 당당한 저근성이라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해야겠다 싶습니다. 뭘 못하는 것의 장애인이 아니라 뭘 해보는 장애인도 되야겠다 싶습니다. 정부를 대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나의 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림이나 동화를 만드는 것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장애인들과는 함께 못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경종을 울려보고 싶습니다.



# 5월

## 김선심



지금은 이렇게 누워 지내지만 어릴 땐 혼자 앉아서 밥도 내 손으로 먹었어요. 바깥엔 나간 적 없어요. TV만 보고 상상했죠. 나를 받아주는 시설도 없었어요. 그러다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이 서른여덟에 첫 외출이었어요. 근데요 거기가 지옥이었어요. 원장 맘에 들지 않으면 그냥 종일 굶어야 하는 날도 있었어요. 내 전화기도 수시로 뒤흔어놔요. 유리병에 갇힌 느낌, 그런 거 알아요? 어렵게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가고 싶은 데 안 가고, 정말 약척같이 모았어요. 나만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활동가들한테 내가 모은 돈을 내놔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시설 밖으로 데리고 나오라고요.

김선심님은 십여 년 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오면서 노들야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꽃님'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화초로 가득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합니다. 거의 모든 일상을 활동지원사와 함께 보냅니다. 자립한 지 10년이 되던 해인 2016년에 자신이 10년간 모은 돈 2000만원을 장애인운동 단체에 기부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 훨훨 날아라, 꽃님 기금!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어느 날부터 탈시설 운동에 꽃님 15년 넘게 주구장창 탈시설만 이야기하며 다니고 있다. 발바닥행동 다음으로 노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2016년 8월 18일,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김선심 언니의 탈시설 10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언니가 10년 동안 모은 2천만 원을 노들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에 '꽃님 기금'이란 이름으로 기부하는 행사였다. 언니는 노들에서 '꽃님'이라는 별칭을 사용했었고, 우리는 그 별칭을 따서 꽃님 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변에서 언니를 자린고비라고 불렀던 이들도, 집회 좀 나오라고 타박했던 이들도, 10년이나 준비한 언니의 깜짝 이벤트에 놀라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또 감동했다. 언니는 2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 10년 동안을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준비했다"고 했다. 다른 동료들이 거리와 현장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칠 때 자신은 그만큼 참여하지 못하니, 돈이라도 모아서 기부하겠다고 생각했단다. "내가 시설에서 나온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장애인도 쓸모

있는 인간이다. 나는 내 방식으로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는 언니의 담담한 고백이 우리를 더욱 미안하고 부끄럽게 했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집권 여당의 수많은 정치인들도 남 탓하며 자기 살 길 찾기에 골몰하는 세상에서, 언니 같은 이들의 자존심과 책임감은 더욱더 빛나 보인다. 언니는 자존감이 정말 센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감히 쓸모없다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었다. 사실 발바닥의 어느 누구도 언니에게 '탈시설 1호'라는 책임감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언니는 스스로 발바닥의 탈시설 1호라며 자신이 잘 살아야 누구라도 탈시설을 지지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단도리했다. "니들이 서울에서 전

남의 시설까지 나를 찾아와 준 것처럼, 이 돈 갖고 전국의 시설 가는데 차비라도 써. 가서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 언니의 명령이었다.

언니가 자립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사실 시설에 있는 누군가가 자립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세상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제도화 되었고 체험 홈이나 자립주택이라는 이름의 주거 공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시설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이 선뜻 바깥으로 손을 내밀기도 어렵고, 그 손을 잡아 지역 사회 정착을 지원해 주는 기관도 많지 않다. 법과 정책과 예산은 허접하기 짝이 없다. 1,200명의 홈리스와 장애인이 거주했던 대구 희망원이 인권 유린과 비리로 문제가 되자, 이를 운영해 왔던 대구구천교회유지재단에서는 온갖 권모술수로 버티기를 해 오다가 결국 운영권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를 관리·감독했어야 했던, 사실상 이 사태의 공범인 대구시는 다른 운영자를 선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129명이 사망한 이곳에서,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 이들의 시설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희망원 사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대구시. 또다시 1,200명의 꽃님이들을 시설에 가두어 두려는 대구시의 발상에 분통이 난다. 그런데 이런 발상은 시설 문제가 발생한 전북에서도, 경기에서도, 인천에서도, 서울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가들과 정치인들은 애당초 꽃님이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도 복지 와 인권을 말하는 이들에게, 진정 인간의 존엄을 되묻고 싶다.

어쨌든 세상은 그러할 지라도 언니의 뜻과 의지로 '꽃님 기금'은 탄생했다. 이것을 마중물 삼아 '탈시설-자립생활 기금'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고 노들과 발바닥은 결의했다. 선심 언니가 만들어낸 이 '아름다운 역전'은 여전히 시설에 살고 있는 다른 꽃님이들의 자유로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역전에 동참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시라. 전국의 수용시설을 훨훨 날아다닐 꽃님 기금을 함께 키우자!

### '꽃님 기금' 공식 후원 계좌

국민 488401-01-249324[박경석(꽃님기금)]

정기적으로 기금을 보태실 분들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꽃님기금으로 지정 기부하시면 됩니다.

(담당: 김정하 010-3252-9463)

# 6월

## 박정숙



야학에 오기 전에는 집 근처에 있는 회사와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혼자서 나가는 게 겁이 났거든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남편이 먼저 떠나면 누가 나를 찾아올까, 먹먹한 마음이 될 때가 많았어요. 종이접기를 일부러 열심히 배웠어요. 할머니가 돼서도 종이접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노들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는 앞날 걱정 안 해요. 혼자 남겨질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든든한 게 있어요. 뒤가 든든하면 앞으로도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 동스쿠터를 타고 혼자 멀리까지 나가보기도 해요. 앞으로 야학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더 멀리 가보려고요.

박정숙님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이십대 중반까지는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재봉이나 사무일처럼 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왔습니다. 공부하려고 장애인야학을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노들야학이 나와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지만 낯설음과 두려움을 하나씩 깨가며 새로운 세상을 만나갑니다.





## 저는 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해요

≡≡≡ 박정숙

노들야학 학생이고 (사)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종이공예를 하고, 가끔 시 쓰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 만나  
맛있는 밥 먹는 것도 좋아한다. 구름 몽실거리는 하늘을 좋아하고,  
아직은 소녀이고 싶고, '정숙'이라고 이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한다.

노들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제가 일하는 곳입  
니다. 작년 8월 노들야학 선생님의 권유로 반상  
근으로 일하다가 올해 1월부터 상근으로 일하  
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업무라고해서 예전  
에 했던 일과 비슷하겠지 생각하고 겁 없이 시작  
했는데, 예상외로 어렵고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하기를 권유하고 같이 일했던 선생  
님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하나씩 알아가고 채워  
가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  
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심 통의 전  
화를 받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무슨 일을 하는 건  
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 그저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마치는 시간에 가서 다시 집에 데려다 주면  
된다고 들었다는 분들, 반말을 일삼으시는 분들,  
'장애자'라고 한다면 '환자'라고 계속 말씀하시

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은 조금 불편할  
뿐이지 환자가 아닙니다."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  
쾌해져서 딱딱하게 응대를 하게 되고 불친절하  
다는 말도 사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만나며 느  
낀 점은 첫째,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비장애인  
들의 마음과 시선은 멀리에 있구나, 하는 것입니  
다. 둘째, 활동보조인 교육은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든 안하든 간에, 장애를 올바르게 알게 하고  
장애 감수성을 키워주어서 마음과 시선을 가깝  
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생의 대부분은 50대에서 60대 후반의 분  
들입니다. 그분들 중엔 장애인 자녀를 둔 분들과  
장애인당사자들도 계시고, 퇴직하신 분들, 현직  
요양보호사들,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

성들이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이 많  
은 사람들이 배워서 일자리가 있겠느냐, 화장실  
이 불편하다, 그밖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십  
니다. 그렇지만 강의를 듣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  
차 변화가는 교육생들을 보면서, 매 회기 교육마  
다 힘든 일도 조금씩 있지만 보람을 선물로 받으  
며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분은 장애인들이 왜 저렇게 거리에서 데  
모를 하고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자  
신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했었는데, 교육을 받  
고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며 비타  
500 한 박스를 주고 가셨습니다. 또 다른 교육생  
은 너무나 좋은 교육이라서 대학생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고, 설령 활동보조 일을 안 하  
더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넓혀주고 함께 사는 것  
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교육을 신청하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강의에 감동을 받았다고 파김치를  
담아서 갖다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빵, 과자,  
떡, 직접 재배하신 상추 등을 감사하다며 주시는  
데, 그 선물의 크고 작음을 떠나 변화된 시선과  
더 가까워진 마음의 표현이라 생각하니 저도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해,  
그리고 지하철의 엘리베이터와 저상버스가 어떻  
게 도입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기 와서 처음  
듣고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  
다. 인권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언어사용에

대해서, 또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장애  
인들이 왜 지금도 끊임없이 거리에서 권리를 외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  
았지만, 앞으로는 고민하고 돌아보며 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개설되면 좋  
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노들장  
애인권센터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장애인권교  
육이 정말 모든 학교에서 정규 과목이 되면 좋겠  
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  
들이 사회 곳곳에서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 그린  
라이트 투쟁에 나선 장애인들을 향해 욕을 하기  
보다는 묵묵히 기다려 주는 마음과 시선이 더 많  
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화를 받으  
면서 속상한 말을 들어도 이제는 딱딱하게 대하  
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교육이 시작  
되고 며칠이 지나면, 서로 웃으며 인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소통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여  
는 데 작은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조금  
씩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때마  
다 열정적인 강의로 마음을 열어주고 감동을 주  
시는 30여명의 강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빛진 마음에 벽돌을 놓습니다.

## 대항로 시대를 여는 벽돌 후원인 이야기

≡≡≡ 박정숙

노들야학 한소리반 재학생이고 노란들판 상근 활동가입니다.

오십을 훌쩍 넘어 꼬트머리에 살면서 깨달아 지는 것이 있다면 그때 그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린 순간은 지금도 떠올리면 아쉽고 후회 되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 수 년이 지나도 설핏 마음이 멈춰 진다는 것입니다. 30년도 전에 결혼을 하고 어려움이 많아 신혼여행을 미뤘습니다. 30년째 꿈만 꾸고 있던 여행을 제주도로 정하고 목적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안 다녀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우선 돈에 이름을 붙여 줬지요. 제주도 여행 기금... 이렇게 하니 모여졌고 적지 않은 돈이 생겼지요. 이제 하나는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이미 신혼여행은 아닐 테고 그때의 느낌도 아니겠죠. 놓쳐버린 것은 이러나저러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 때까지 지나쳤던 순간들이 늘 마음을 헤집는 밤들이 잠 못 들게 하는 요즘 옛일

교훈삼아 비춰볼 때 놓치면 안 될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만큼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한 두 번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 두 번은 제주도를 생각하고 마음에게 물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가난하고 아프고 불편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 인생을 바쳐 장애 인차별철폐를 위해 싸워준 동지들 때문입니다. 자주 생각합니다. 2,30년 전부터 동지들을 알았다면 참 좋았겠구나, 장애인으로 살면서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청년시절을 보낸 것이 후회되고 아쉽습니다.

투쟁하는 현장영상을 보며, 저분들이 나의 투쟁을 대신해주었구나 가슴 뭉클하고 고맙고 내

가 바로 빛진 사람이구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있는 자리가 현장에 나갈 수 없기에 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긴 시간의 투쟁들이 모여서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진 세상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감동이고 고맙습니다. 온몸을 던져 싸우면서도 편히 앉아 일할자리 없이 이리저리 다니다 이제 드디어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자리가 대항로에 마련되어서 기쁘고 감사하기에 머릿속 계산기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대항로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과거의 암울했던 시절과 투쟁으로 이겨나가는 오늘 그리고 마침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미래를 위해 동지들의 목마름을 풀어줄 한 모금 물에 한 방울이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고 주어진 기회를 덩석 잡았습니다. 지금은 한 방울이지만 두 방울 세 방울이 모여 한 대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목마르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 확신합니다. 나는 늙어가지만 동지들과 함께 이곳에서 살붙이로 살고 싶습니다.

동지여러분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긴 시간의 투쟁들이 모여서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진  
세상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감동이고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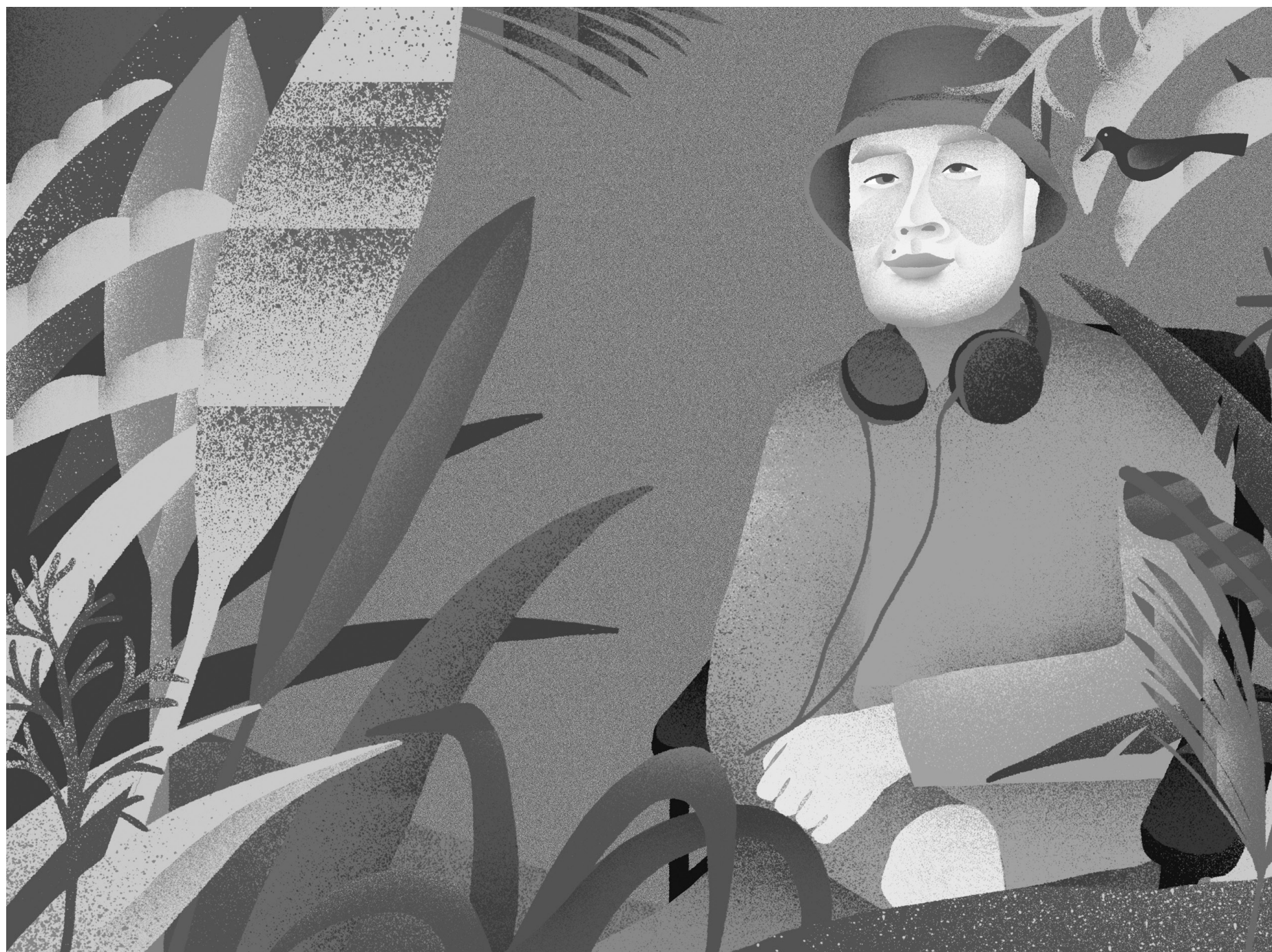


# 7월 추경진



시설 밖으로 나가서 자립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 나 여기서 안 죽어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내 숨이 찾아오자 나도 15년을 살아온 시설에서 나갈 준비를 했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꿈꾼다고 맘대로 되나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추어 놓고 사는 거죠. 저는 지금도 좋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방안을 가득 채웠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내가 갈 곳들이 생겼어요. 무언가를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꿈꾸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추경진님은 이십대에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입고, 15년 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 살았습니다. 3년 전 시설에서 나와 노들야학 근처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 주택 평원재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거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7월 추경진

2016 여름 <노들바람> 108호 中

[노들아 안녕]

## 꽃동네에서 나와 노들로

≡≡≡ 추경진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현재 평원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경진입니다. 저는 1997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꽃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살다가 2016년 1월 7일 음성 꽃동네에서 나왔습니다.

꽃동네에서의 삶은 답답하고 지루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있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꽃동네에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선 죽기 싫다. 정말 죽기 싫다. 그래서 꽃동네를 나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꽃동네를 나오게 되기 까지 꽃동네에서 같이 살다가 자립을 한 친구들의 모습이 큰 힘이 됐습니다.

노들은 이음자립생활센터에서 진행한 1박 2

일의 자립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꽃동네에서 나온 친구들이 노들장애인야학에 많이 다니고 있어서,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했고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해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들은 장애인운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노들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채 투쟁을 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무슨 내용으로 싸우는지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꽃동네를 나와서 다치기 전에 살던 마포에 가봤습니다.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 가보곤 했던 곳이었는데, 옛 장소의 추억을 찾을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요즘은 꽃동네에서 탈시설한 사람들의 모임인 '더 플라워'에 가입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한 건 없고 돈을 좀 모아서 임대아파트와 같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닥쳐오는 일들을 회피하지 않고 잘 헤쳐 나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 8월

## 박소민



아이들이 좋아.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원 없이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춤추고 신나게 놀면서 말야.

박소민님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뒤 노들야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나는 춤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프라더 윌리증후군으로 식욕을 조절하기 힘들 때가 있지만, 주위 사람들의 지원으로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익혀가려 합니다.





# 앞이 캄캄해요!

## 어머니가 들려주는 스무 살 딸 이야기

### 가나

노들장애인야학 교사. 소민이에게는 '오빠'라 불린다. 요즘에는 야학에서 지민이 형과 노는 것에 재미가 들었다. 경남 누나랑 싸울 때도 있고, 주원이 형에게 면박을 줄 때도 있다. 해운 누나한테는 종종 예쁨을 받는다.

작년 여름이 한창일 무렵이었을 게다. 나는 야학에서 흔히 '낮 수업'이라 불리던 수업을 맡고 있었다. 이 수업은 '천천히 즐겁게 함께'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된 발달장애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낮에 하는 프로그램이라 낮 수업이라고 불린다.

어느 날 '천천히 즐겁게 함께' 사업을 담당하시는 한혜선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선생님은 낮 수업에 새로 들어오길 바라는 학생이 있다며 상의를 하고자 하셨다. 이름은 박소민, '나야 장애인교육센터'에서 활동하시는 이찬미 선생님 딸이란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특수학교에 다닌다고도 하셨다. 내년부터 야학에 입학할 예정인데, 찬미 선생님 바람은 소민이가 먼저 낮 수업을 들으며 야학 생활을 맛보았으면 한다는 거였다. 소민이가 야학에 적응할 시간을 미리 가져보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었다. 혜선 선생님은 수업을 맡은 강사로서 내 의견은 어떤지를 물으셨다. 정원은 다 찬 상태였지만 한 사람 정도는 더 받아도 될 성 싶었다. 그런데 소민이가 '중증 지적 장애'라는 얘기를 듣고는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다. 만일 들어온다면 소민이한테 수업 보조를 할 사람을 따로 붙여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속으로는 찬미 선생님이 극성스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미 정원을 채워서 굴러가는 수업에 아직 졸업도 안 한 딸을 굳이 밀어 넣으려 하시나 싶었다. 사람 수가 느는 만큼 신경 쓸 일도 늘까 봐 지레 잔걱정이 되기도 해서 더 그랬다. 그러고 나서 낮 수업을 맡은 선생님들끼리 소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더 나눴다. 우리는 결국 소민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뒤 소민이는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하반기부터 낮 수업에 종종 나왔다. 금요일에는 댄스 반 특활 수업에도 들어갔다. 야학에 처음 왔을 때 소민이는 마냥 곱을 내며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랬던 소민이가 이제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엄마를 졸라 야학에 나오고 싶어 할 정도로 야학을 좋아한다.

지난 2월 5일은 소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이었다.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 찬미 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볼 겸 소민이 졸업식을 찾아갔다. 내 얘기를 듣고 고맙게도 노들야학교사 가비 선생님과 김지윤 선생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다. 김유미 선생님과 장애인언론 『비마이너』 최한별 기자님도 취재를 겸해서 함께 오셨다. 우리 일행은 졸업식을 지켜보고 나서 소민이네 식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다. 아래 이야기는 그때 찻집에서 이찬미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다.

### 소민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고민이 많아요. 활동하면서 엄마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민이는 전공과 1년 빼고는 이 학교에서 딱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공과도 사회로 나가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인데... 처음에 전공과 과정을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엄마들이 있어요. 저는 고작 2년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공과가 이삼 년 과정이었다면, 저도 소민이를 보냈을 거 같아요.

소민이 앞날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어요. 지역사회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마음 맞는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느냐. 지자체에서 무언가를 만들게 하려면, 최소한 엄마 세 명이 목소리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 지자체를 상대로 싸움을 한다는 건 본인이 가진 생각이 확고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청을 점거해? 운동을 하려면 드러누워야 하는데, 나는 드러눕는 거는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별나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죠. 면담이나 하러 가고,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면담만 계속하다가 끝이 나요. 앞에서 액션을 취하는 사람, 뒤에서 협상하는 사람, 연대하는 사람, 이렇게 각자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닌 곳, 더 잘 되어 있는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소민이를 쳐다보며) 저 친구를 잘 관찰하며, 잘 하는 영역을 지원해줘야 해요. 한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주의 깊게 한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힘든 시스템이에요.

### 연애와 결혼

마냥 내 바람일는지 몰라도 소민이가 좋다는 사람만 있다면 결혼까지도 생각해요. 그런 만남을 가질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민이가 노들야학을 다니면서 어떤 오빠가 좋다는 얘기를 했

어요. 요즘에 저는 다른 엄마들에게 이렇게 얘기 해요. 우리 자녀들이 남자,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장이나 기회가 있어야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노들에 다니기 전까지는 소민이가 이성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곳에서 만나는 오빠들 말 한 마디에 행복해 하고 '보고 싶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또 다르게 이성에 대한 설렘과 만남이 시작되는 거겠죠. 이런 성(性)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에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저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 촘촘히 알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소민이가 노들야학에서 어떻게 성숙해 가길 바라는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노들야학이나 본인이 다니는 곳만이라도 스스로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봐 주면서 함께 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다니면서 많이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회생활에 젖어들면서 조금씩 성장하길 바라죠. 또 다른 욕심이 있다면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댄스를 하면서 즐겁고 행복했으면 해요. 요즘은 소민이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음식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리 수업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희망사항이죠.

**활동보조 지원**

소민이는 활동보조 지원으로 한 달에 189시간을 받아요. 129시간은 보건복지부에서 받고 60시간은 지자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받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서 한 달에 10시간(통학 지원)이 잘려요. 하루에 6시간 정도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용돈**

소민이 한 달 용돈은 20만원이에요. 한 달에 그 안에서 마음껏 쓰게 해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니까. 그래야 자기 용돈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기도 하고, 밥도 대접할 수 있죠. 그런 문화를 익히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려고 해요. 소민이가 아직 계산을 못 해서 현금으로 쓰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카드로는 결제할 수 있어서 카드를 사용해서 용돈을 쓰고 있어요.

**소민이가 어떻게 자립해 나가길 바라는지?**

소민이가 앞으로 다닐 곳이란, 소민이를 활동보조해주실 선생님이 자립 계획을 같이 고민해서 짚으면 좋겠어요. 활동보조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하루 세 번씩 반복 수업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집, 내 주변, 가는 곳, 이렇게 세 곳에서 무언가를 익히는 것을 반복하게 되겠죠.

**소민이 엄마로 산다는 것은?**

제가 늙었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잖아요.

'지금부터 애한테 사회생활을 익혀 주려면 내가 몇 년을 붙여야 하나?', 이런 고민도 했어요. 제가 삼 년만 소민이한테 밀착해서 지원하면 자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요즘 주변에서 몸이 약해지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도 많고, 갑자기 암이라고 진단 받은 엄마들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엄마들 생각하면 내가 건강할 때 소민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막 가르쳐 주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학교 밖에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소민이가 학교라는 곳을 떠나면서 느끼는 막막함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다 접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하나. 아니면 만들어지게끔 지원을 대고 '네 인생은 너, 내 인생은 내!' 이렇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 지금이 기로예요. 올해 안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소민이는 질한 때문에 날로날로 살이 찌고... 지원체계가 생겼으면 하는 건 간절한 희망이죠.

**뒷이야기:**

**졸업생이 '빛나지 않는 졸업식을 지켜보며'**

나는 꽃다발과 선물을 사느라 졸업식에 조금 늦었다. 졸업식장에 들어서 보니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런저런 상을 나눠주고 있었다. 상을 주는 주체는 각종 장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장들, 지역 정치인들, 주변 단체의 장들이었다. 지역 유지나 목사님 같은 분들도 끼어 있었다. 비디오를 반복 재생하는 것 같았던 이 순서는 한참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이 지루한 시상식이 졸업식 전체에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잡아먹은 듯하다. 그 뒤 국회의원 이 아무개의 축하, 교장 선생님 축사, 영상으로 편집한 졸업생들의 '학교생활 사진 모음' 보기, 졸업식 축하, 사진 찍기, 대강 이렇게 식순이 지나갔다.

어린 시절의 한 마디를 매듭짓는 예식치고는 참 별 게 없었다. 행사를 마친 졸업생들 손에는 꽃다발과 선물, 졸업장, 그리고 주는 사람의 직책과 이름이 조금씩 다른 상들이 들려졌다. 축하를 받고 상을 받은 사람은 졸업생이었지만, 이 예식의 주인공은 졸업생들이 아니었다. 이 예식에서는 졸업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오로지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의 이름과 뻘한 훈사만이 넘쳐나고 있었다.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주체'보다는 '객체'로. 마치 이 학



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떠맡을지도 모를 배역을 이 졸업식이 미리 보여주는 듯했다. 그래서 씁쓸했다.

그날 아주 오랜만에 졸업식 노래를 들었다. 문득 '빛나는 졸업장'이라는 구절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졸업생과 그 부모들에게 과연 빛나기만 한 물건일까? 고교 졸업 기념품, 학력 증명서 말고 다른 의미가 있을까? 이들에게 특수학교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국가가 돌봐주는 '장기 보호센터'였을 수도 있다. 그것도 딱 12년 동안만, 그리고 청소년기까지만 한정해서 말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막상 갈 데가 마땅찮다.

그나마 '기능'이 좋다고 인정받는 극소수만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일자리는 보호작업장이나 사회적 기업 따위를 포함한다. 시설이 좋은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역시게 운이 좋은 경우다. 흔하게 찾는 장애인복지관과 주간 보호센터는 그쪽에서 맘대로 정해둔 '0년'이라는 기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다른 복지관과 센터를 찾아 떠나야 한다. 그나마 장애인야학은 이용 기간에 제한이 없고, 입학 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거의 다 규모도 작고 운영난마저 겪고 있다. 앞에서 다룬 온갖 종류의 기관과 시설을 몽땅 다 합쳐도 어른이 된 발달장애인들을 모두 받아주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학교를 졸업

한 발달장애 성인과 그 가족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마는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받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달리 보면 이른바 '퇴거장'일 수도 있다. 그들을 오랫동안 붙들어주었던 울타리에서 강제로 쫓겨남을 알리는 증명서!

말미에 찬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는 앞이 굉장히 캄캄해요.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아침에 문을 여는데 눈이 짙 차서 학교를 가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렇다고 문을 닫고 있자니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요즘 들어서야 나는 발달장애 성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찬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그 아득함을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본보기였다. 현실을 알아가며 이제야 찬미 선생님이 보이셨던 모습들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찬미 선생님이 너무 극성스럽다고만 여겼던 내 자신이 지독히 옹졸하게 느껴졌다. 찬미 선생님께 죄송스런 마음도 들었다. 이 글로나마 찬미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문제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극성스러움이 아니라, 부모들을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만드는 이 체계다.

상을 주었던 치들은 자신이 그 졸업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마 몰랐을 것이다. 자기 이름

으로 상을 주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이다. 졸업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겪게 될 삶에 대해서는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 알고도 그랬다면 그들은 정말 뻔뻔한 인물들이다. 축사를 한 국회의원은 성년후견인 제도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의원님은 축사를 할 때 뻔한 인사말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나는 의원님에게 학생들 앞날을 위해 이런 입법 활동을 해보겠노라는 다짐이라도 밝혀야 하지 않았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그들은 발달장애인 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나. 그들은 발달장애 성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누구보다 힘써야 할 이들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 지위를 갖고 있다면 말이다. 그들이 졸업생들에게 베풀었던 '상'이란 무얼까? 거대한 눈덩이에 가로막혀 있

는 아이들에게 모자나 우산, 또는 넥가래나 눈삼 따위를 겨우 쥐어주는 꼴이 아닌가. 돈이나 장비, 사람을 들어서 함께 눈을 치워주어야 할 그들이 말이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으며 함께 걸어가는 공감과 연대의 확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소민이와 같은 발달장애 성인들을 위해서 우산을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내 감낭으로는 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양심이 그런 위선과 기만을 감당할 수 없으리라. 나는 그저 함께 눈을 맞으며 그 길을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9월 임태종



내가 열다섯 살 때 소를 백이십 마리인가 키웠어요.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나 다 잘해요. 지금껏 안 해 본 일이 없이 살았어요. 스무살 때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그때부터 의족을 끼우고 다녀요. 야학에서 밥 같이 먹는 거 참 좋아요. 반찬도 맛있고. 배곯고 살았던 때가 길어서 그런가 이젠 삼시세끼 꼭 챙겨먹어요. 나 아직 글도 못 읽는데,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참 고맙지요.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야학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지원해주고 할 텐데, 언젠가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

임태종님은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만능 살림꾼입니다. 현재 청솔1반에서 공부하면서, 야학 급식 주방에서 배식과 설거지 일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투포환, 보치아 경기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이기도 합니다.





# 태종의 이야기

2019년 달력을 준비하며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정리 한명희

대전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야. 내가 15살 때 소를 120마리인가 키웠어요. 섬을 못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무척 많이 키웠고, 그때 한 달에 쌀 두 가마니 값을 받았지. 큰돈이었어. 아들 둘, 딸 셋 중에 내가 둘째인데 20대에 형이 좀 일찍 죽었어. 젊었을 때도 딱히 집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던 형이었는데, 공장에서 다쳤거든. 지체장애 1급 판정받고 그렇게 살다가 먼저 떠났지.

가난했던 가족.

엄마랑 아빠가 글을 하나도 몰랐어. 수도 모르고. 남의 집 농사일 도와주며 다니셨지. 그렇게 일 다니고 하느라 내가 동생 세 명 다 업어 키웠어. 그때는 학교를 가려면 등록금을 내야 했거든. 난 초등학교 다닐 생각도 안 했어. 동생들이나 학교 보내야지 싶었지. (안 어울려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했어.

21살 되던 해에 (소 농장) 지겨워서 그만두고 공장에 다녔지. 그렇게 몇 년 좀 다녔나.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 잘랐지. 그때부터 다리 하나에

는 의족 끼우고 다녀. 대전에는 돈 되는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서울로 올라왔어. 병원도 서울에서 치료받아야 더 좋을 거 같았고. 모은 돈으로 전셋집 모아서 살았는데 형이 왔지. 그냥 망나니 형이 아니라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형이 돼서 말이야. 공장에서 다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왔지. 서울에 다니던 큰 병원에서 퇴원하고 서울 내 전셋집에 강 데리고 있었어. 대전까지 오고 가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똥오줌 다 받았어. 그렇게 살다보니 형수도 와서 같이 살더라. 정말 진절머리가 났어.

수중에 돈 20만원 있었는데 그 내 집에서 내가 나왔어. 부산에 내려갔지. 그때 부산역에서 노숙도 많이 했어. 교회 무료 배식하는 데에서 식당일 좀 하지 않겠냐 해서 몇 년 들어가서 일도 했어. 방 한 칸에 잠잘 수 있는 공간도 있었거든. 그렇게 한 2년 살았나. 주민센터에 갔더니 내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라는 거야. 나는 신청한지도 몰랐거든? 알고 보니 그 교회 목사가 내 복지카드 들고 가서 신청하고 내 수급비를 다 가져간

거더라고. 교회에 데리고 있던 노숙인들 다 그렇게 했어. 나 그 교회에서 나올 때 돈 한 푼 못 받았단다.

그때쯤 형수랑 엄마가 나를 찾는다는 연락이 닿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지. 노인시설 가서 식당에서 일도 하고 했지. 30대 중반에는 안 해본 일 없다. 봉어빵 장사도 하고 했어. 그렇게 돈 좀 모아서 고시원 들어갔어. 가서는 총무 일도 한 6년 했어. 그렇게 서울에 좀 정착하니 장애인단체 등 소식도 좀 듣게 되고 했지. 그렇게 노들야학을 알았어.

지금은 노들야학에서 복지일자리(한 달 56시간 근무, 종로구청에서 임금 지급)로 야학 점심 급식 설거지 일 해. 이거 일하는 건 암것도 아냐. 고맙지.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이니까 돈을 100만원 이상만 벌어도 수급자가 탈락이 돼버려. 수급비 한 달에 80만원도 안 되는 거, 강 쥐버려도 되는데 의료급여 때문에 안 되어. 나 아직도 글도 못 읽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들 참 고마워.

밥도 같이 먹고 하니 좋고. 배고고 살았던 게 길어서 인지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 밥 같이 먹어서 좋아. 반찬도 맛있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야학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도 지원해주고 할 텐데. 언젠가 그런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랄 거 하나 없어. 그리고 억울한 거 하나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 10월

## 김동림



술 드신 날이면 아버지는 나를 향해 '저거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소리를 질러대시곤 했어요. 결국 어머니한테 말해서 시설에 스스로 기어들어갔어요. 스물다섯 살에. 그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시설에서 뛰쳐나온 뒤 사람들이 물어요. 나와서 살면 위험하지 않냐고. 근데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으면 꿈이 생겨요. 어렸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내 꿈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도우며 사는 거 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전국일주 하는 거. 장애인이니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걸 해낸 사람을 보았어요. 그걸 보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힘도 났어요. 더 나이가 들어도 꼭 해보고 싶어요.

김동림님은 이십대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가 22년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2009년 비리와 인권침해가 많았던 시설에서 동료들과 함께 집단 퇴소하고, 국가에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움을 벌였습니다. 야학에서 만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여전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교육 이야기]

## 공무원 인권교육을 다녀와서

김동림

석암재단(현 프리웰)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2009년에 자립한 탈시설 7년차 장애인. 노들장애인야학 한소리반 학생이고, 탈시설을 하려는 후배들 멘토 활동과 인권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나갔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많이 해봤지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나가보기는 처음이다. 처음 나와 장애인권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제안 받았을 때, 나는 망설였다. 아직 학생들에게도 인권이란 것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내가 공무원 교육이라니, 웬 말?

교육 장소는 서울시인재개발원이었다. 공무원 교육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겠지 생각했다. 첫날 교육을 가보니 1층에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는 비교적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막상 5층 교육장에 가보니 대 실망. 왜냐 하면 나의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라가려고 보니 경사로는 없어서 이동경사로를 설치하여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을 마치고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 5

층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 1층으로 내려가야만 해서 번거로웠다. 비장애인만 이용하는 교육장이 아닌데, 당연히 장애인도 함께 다닐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층마다 장애인화장실도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교육 중에 여성 공무원 한 분이 서울시인재개발원 측에 이야기를 해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교육을 나갈 때는 일부러 수동휠체어를 타고 갔다. 공무원들에게 경사로가 없으면 힘들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 갈 때 공무원들이 밀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흥건하게 흘렸다.

그렇지만 매번 그렇게 하자니 나도 번거로워,

이후부터는 그냥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서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밑에서 교육을 했다. 이렇게 몇 번 나가다 보니 나도 그냥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른다. 송국현 동지의 영상을 보여 주면 그제야 얼마나 힘든지 조금 아는 듯도 했다. 또 고속버스 타기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그건 집회 아니냐고, 또 기차 타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명절이 되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가

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기차가 가지 않는 곳도 많고, 또 기차 타고 가면 번거롭게 이동해야 하는 곳이 아직 많다. 하지만 고속버스 타면 번거롭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다.

또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덧붙인다. 2시간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후부터는 장애인을 도와줄 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꼭 물어보고 도와주라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권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인권강사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한다.



# 11월 장애경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직장에 가고 동생들은 학교에 가니 집에 사람 하나 없어 혼자 지내야 했지요. 한 친척이 와서 애경이 집에 혼자두지 말고 시설 보내라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라도 하며 지내게 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 소리 듣고는 시설 보내 달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죠. 지금의 남편을 거기서 만나 둘이 필사적으로 그곳을 탈출했어요. 요즘은 날만 새면 노들로 와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야학에서 사람들 만나 수다 떨면 진짜 재밌어요. 마음이 안 좋은 날에는 야학 복도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럼 기분이 다 풀려요. 야학수업 중에는 북치고 노래하는 음악이 제일 좋아요. 북치고 노래하고 수다 떨고. 나는 이런 생활이 정말 좋아요.

장애경님은 스물일곱 살에 가족을 떠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금지한 시설에서 숨죽이며 살다가, 어느 날 밤 정말로 몸으로 기어서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그 길로 자립생활을 시작했고 노들야학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 애경 이야기

2019년 달력을 준비하며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정리 김유미**

장애경. 1964년에 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났다. 부모가 아이를 낳게 하려고 병원부터 무당집까지 가리지 않고 뛰 어다녔으나 낳지 않았다. 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았다. 학교 가는 동생들과 직장엔 나가는 부모님을 지켜보며 집 안에서 살았다. 어느 명절에 집에 온 친척이 어머니에게 자신을 혼자 두느니 비슷한 친구들이라도 만날 수 있게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다. 그 뒤로 부모에게 시설에 입소시켜 달라고 졸라, 스물일곱이 되던 해에 남양주에 있는 00원에 가게 된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시설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 축사를 개조한 공간에서, 오십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무덤 같은 느낌 속에서 매일이 비슷한 일상을 보냈다. 서른셋에 지금의 남편 탄진을 시설에서 처음 만났다. 시설 원장은 시설 생활인들의 연애와 결혼을 금지했다. 6년 비밀연애를 하고, 남편이 결혼하겠다고 관계를 공식화하자, 둘은 시설원장의 눈엣가시가 됐다. 탄진이 먼저 나가 기반을 마련한 뒤 애경을 데리고 나오기로 약속하고, 먼저 시설을 떠났다. 바깥에서 탄진이 보내준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시설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간다.

그날밤 애경은 시설에서 무릎과 엉덩이로 기어나오고, 우여곡절 끝에 탈출한다. 경찰과 인권활동가의 도움으로 서울 명륜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인 평원재에 머물게 되었고, 바로 다음날 노들야학에 나왔다. 그 뒤로 야학에 다니고 결혼하고 임대주택을 구하고, 그렇게 우리 곁에 살게 되었다. 노들야학 청솔2반 학생이고, 학생회장을 맡기도 했다.



## 좋아하는 수업이 뭐예요?

음악수업. 북 치고 노래도 배우고. 음악수업을 한 지 7년 됐지. 내가 온 지 한 10년 됐는데 음악반은 그 정도 됐지. 침에 왔을 땐 그런 게 없었어. 침에 임영희 하고 준호 하고 둘이 하다가 나중에 2년인가 지나서 나팔부는 선생님들이 오시고 그랬지. 그때부터 계속 한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갔고 (공연) 초대돼서 부르면 기분이 좋지. 우리만 하면 재미가 없지. 가끔 한 번씩 나가서 앞에서 부르면 재미가 있지.

노들에 오면 재미가 있다. 사람들 얘기도 많이 듣고, 못 듣는 정보도 많이 듣기도 하고. 노들. 수다 떠는 거. 내가 가끔 가다가 답답한 마음이 있잖아. 그럴 때 내가 소리 꺾꺾 지르잖아. 그런 게 좋아. 또 노들 없으면 안 돼. 노들 없으니까 재미없어. 내가 처음에 올 때, 노들 간다고 해서 노들 뭐하는 곳이나 했는데, 가보면 안대. 모르고 다니다가 몇 달 동안 다녀보니까 수업도 배우니까 좋고 여기 저기 가서 많이 배우니까 좋지. 내가 시설에서 기어나왔을 때 그때 나오자마자 평원재로 갔거든. 그때는 잠이 안 왔어. 아침에 임소(임소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가 노들 간다고 해서, 나는 노들 어떤 곳이나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거기 탄진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나는 또 시설인 줄 알았어. 뭐하는 곳이나고 하니 공부하는 곳이라. 그니까 내가 나오자마자 노들에 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니까 딱 십년 됐지.

## 학교 간 적 있어요?

학교 다닌 적은 없어. 그때 내가 몇 살 때야...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가 열 몇 살 땐가. 한 이년 동안 이주에 한 번씩 성당에서 사람이 집으로 와서 그때 좀 배

웠지. 그때 많이 배웠는데 그 분이 딴 데 가는 바람에... 끝났지. 그때는 글씨... 도화지, 색종이 같은 거 있잖아. 도화지에 색종이 오린 걸로 글씨 써. 내가 그거를 맞춰서 글씨를 쓰는 거지. 그러다가 시설 가서 시설에 있다가 여기 온 거지. 시설 들어간 게, 스물일곱에 들어가서 마흔에 나왔으니까. 시설에서 16년 살았고 지금 나온 지 10년 됐어. 시설 갈 때는 집에 도와줄 사람이 없고. 동생들 다 학교 가고 부모님 직장 가고. 그때는 지금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지. 활동보조 그런 것도 없었어. 명절 때마다 친척들 다 모이니까, 그때 누가 애경이 혼자 집에 두지 말고 거기 보내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도 하고 좋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 분이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 엄마랑 얘기할 때 내가 들었지. 그래서 시설에 보내달라고 했지. 근데 그때 또 아버지가 안 보낸다고 해서 또 대판했지. 남양주에 있는 00원에 갔어. 근데 막상 가보니까,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시설 가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 시설에서 나와서 짬 좋았던 거?

내가 나오자마자 옷이 없어가지고. 그때 내가 기어나올 때 만원짜리 딱 네 개 가지고 나왔거든. 나와서 옷이 없어서 옷부터 샀는데. 그때가 기억에 남지. 바지 하고 티, 당장 입을 걸 샀어. 내가 가서 직접 골랐어. 전에는 이렇게 한 적이 없었지. 원장님이 다 해줬으니까.

## 노들에서 공부하면서 생긴 목표 같은 거 있는지?

목표? 목표는 없고 나는 노들에 이때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게, 집에 있으면 답답한데, 어차피 수업이 맨날 있으니까. 집에서 빨리 나오면 열시, 열한시에 나오니까.

나오면 또 동지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하고 수도도 떨고. 무슨 살 거 있으면 쇼핑도 하고. 또 보치아도 하고 하니까. 여기서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지.

**요즘 시설에 가서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지원 하고 있던데, 맞죠?**

내가 나온 지 10년 됐고, 시설에서 한 3~4명 나올 사람 있어서 준비하고 있거든. 기분이 좋지. 왜냐면 거기 가보면 감옥인데 여기 나오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갈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해. 거기 사는 애들도 집이 해결되면 다음 달 나오고, 그 다음 달 나오고 할 거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언니한테 노들은 뭐야?**

노들은 나의 방이지. 나의 방... 날만 새면 여기 맨 날 오니까. (노들 없으면 어디 갈 거 같아요?) 그건 모르지. 진짜 방학 때 여기 안 오면 이상해. 어쩔 때 집에 있으면 한 달 동안 안 나오면 허전해. 저녁이 되면 뭔가 빠진 기분이야. 할 일 다 했는데, 뭔가 빠진 기분이야. 지켜올 때도 있는데. 몸이 힘들고 그러면 지겹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때뿐이지. 학교 선생님들이랑 내 동지들인데... 매일 봐도 진짜 재밌어.

왜냐면 거기 가보면 감옥인데  
여기 나오면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갈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할 수 있잖아.





# 12월

## 박경석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들야학은 공부하는 모습이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거리에서도 공부하고, 시도 때도 없이 공부하지요. 지하철 철로 위에서도 공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공부하고. 공부가 책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가장 잘 가르치는 학교예요. 배울 것이 널려있어요. 그 배움을 배움이라고 느끼자면 시간이 필요하지요. 우리 배움은 선명하고 우리 배움에는 명쾌함이 있어요. 쉽게 얻지 못하는 배움이지요. 이런 노들을 일구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풀이 되어 주고, 누군가는 대지가 되어주고, 누군가는 물을 부려줬어요. 또 누군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누군가는 태풍처럼 지나갔지요. 미래가 새벽녘 안개처럼 희미하더라도 나는 이 들판에 있을 거예요.

박경석님은 노들야학의 교장선생님입니다. 교장보다는 교장으로 불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십대에 행글라이딩 추락 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에 먼저 손 내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 TFT 전문가 PKS를 만나다

### 최한별

비마이너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고양이,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사주는 거 대환영♥ 만들어주는 건 더 환영♥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났다. 박경석 고장쌤. 이 인터뷰는 긴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세 달 전, 평창패럴림픽을 앞두고 있던 3월 어느날이었다.

**뉴미** 한버리 아이원츄 아임 청탁 투 유. 노들바람에서 한별이에게 청탁을 하려고 해. TFT 전문가 PKS, 온갖 TFT 다 들어간 박경석 고장님. TFT 진행상황과... 박경석의 일상은 어떻게 되었는가. 뭐 그런 글을.

**한별** 일상...파괴된거 아닙니까.

**뉴미** 응 그런...웃픈상황...잘 써줘 한버리

요지는 이렇다. 5년에 걸친 길고 뜨거운 광화문농성의 결실로 일궈낸 '민관협업체(Task Force Team, 줄여서 TFT)'들. 장애등급제폐지, 부양의무제폐지, 탈시설, 이동권 등등....TFT란 TFT엔 모두 들어가 있는 박경석 고장쌤. 원래도

이 사람의 '일상'에 온통 일본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여기에 TFT까지 겹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일까....하는 의문이 '원고청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짧은 인터뷰는 그로부터 3달이나 흐른 6월 19일, 유리빌딩 4층에서 우연히 한 테이블에 급식을 먹기 위해 앉으면서야 극적으로 이뤄졌다. 세 달 만에 이뤄진, 그것도 우연히 가능했던 이 인터뷰는 나의 게으름과 건망증, 그리고 비마이너 기자의 바쁨을 조금 증명함과 동시에, 고장쌤의 살인적 스케줄을 많이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은 사람이 마치 '태평성대'가 이뤄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전 대통령들 이랑 다른, '좋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다. 인간

적이고, 소통할 줄 알고, 따뜻한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정책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TF를 잔뜩 구성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으니까. 고장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보다 싸우는 게 더 힘들다"고 했다. "아예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투쟁 박세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 정부는 우리 말 듣는 척은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안 듣고 있고....그러니 우리는 대화도 하면서 투쟁도 조직해야 하는 거지."

고장쌤은 "TF가 다 미뤄지고 있다"고 했다. 본래 6월초에 계획되어 있던 회의를 정부 측에서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TF에서 유의미한 정책이 결정된 것도 없다. 등급제폐지 TF에 복지부가 들고 나온 '등급제 폐지안'은 복지부가 3차례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탈시설 TF 역시 지지부진하다. 모두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보통 고장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비마이너 기자로서 인터뷰하는 것이 다 보니, 갑자기 고장쌤 인터뷰 톤이 된다.

경석 문재인 정부가 차별금지법이나 등급제 등 소수자 이슈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화를 이어 가면서도 한 쪽에서는 계속 투쟁해야 해요. 대화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대중 투쟁을 조직하고 이슈를 제기해야 하지.

**한별** 고장쌤 그런 딱딱한 '전략' 말구요, 이 지지부진한 정부를 향해 계속 대화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박경석 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뭐예요? 노들바람 독자분들은 박경석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경석** 어? ㅎㅎ...난 이런 거 고민하는 게 즐거운 일이야. 할 게 없어서.. 이런 고민 외에는 고민이 별로 없어. 나처럼 단순무식한 사람은. 나는 어디 가서 쉬라고 해도 늘 어디를 접거할까...그런 생각만 하게 되던데.

**한별** 그거 약간 독재 아닙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약간 박정희 같은데?

**경석**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나중에 전장연 사람들이 다른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의 색대로 처항해나갈 수 있겠지. 지금은 나를 뽑아줬잖아 사람들이. 그럼 박경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 그래서야.

**한별** 응 그렇구나. 그래도 고장쌤 주어진 일 오래 하려면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잠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3시간? 4시간? 어젯밤에 분명 사람들이랑 술 먹고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 여섯시에 저한테 자료 보내준 적도 있잖아요...진심 소름....

**경석** 아,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집에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벽만 쳐다보고 있어봐. 얼마나 일하는 게 소중한다구.



## <부싷돌> 그리고 다시 박경석

장선정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부싷돌>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순수하게 물 입하는 사람을 계산하거나 망설이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어서 박경석을 생각했죠. 지금은 마땅하다는 듯 수많은 이름이 찍히는 소식지 뒷면의 후원인 명단이지만 <부싷돌> 7호의 후원은 딱 두 곳이에요. 것도 맨날마다 쳐들어가다시피 방문하던 단골 밥집 사장님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7호를 찍고 98년부터 지로 후원모집을 시작했지 싶은데 8호쯤에서 40명이 되었다가 10호에는 거의 100명 가까이로 늘었더라고요.

짐작하시듯 후원인 명부를 늘어나게 한 가장 큰..... (뭐라고 해야 하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박경석의 뽀뽀함(이라 쓰고 절실함이라고 이해 할까요?)'이에요. 편집을 제가 했다고 했잖아요. 10호에 있는 후원인의 명단을 보면 '박경석의 첫

사랑'(몹시 가슴 아프게 헤어졌다는) '박경석의 큰 형, 작은 형, 큰 누나, 여동생', '박경석의 동창들' 그리고 막 사회에 나갔지만 아직 낮은데서 박박 기고 있던 퇴임교사들이 대다수예요. 그 모든 이름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딱히 칭찬을 하려고 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박경석은 이제 사회단체들 속에서 꽤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아마 종로경찰서에서도 제법 주목하고 있을 거고, 맨날 여기저기 연대활동으로 바빠서 돈 버는 노란들판은 남의 자식 취급인데 뭐가 예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 인간이 통과해야 할 터널과 쓰라린 장면들, 그리고 살을 찢고 나와야 하는 변태의 순간들을 가장 순명하게 받아들인 자로 박경석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가 겪어 낸 수많은 이별들과 그로 인해 그에게 왔을 고통과 눈물을 생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조금이나마 이해가 됐다.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후, 집 안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보낸 세월을, 이 사람은 이렇게 '만화'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경석**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때 서울대병원에서 장례 치렀는데, 입관할 때 보니까 작년에 종필이(고 박종필 감독님) 입관하던 거기야. 종필이도 서울대병원에서 장례했잖아. 입관 전에 그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와 종필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됐어. 나도 언젠가 저기 누울 텐데. 그때 누가 내 모습을 봐줄까. 그때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겠다, 싫어.

**한별** 음...그렇구나. 그래도요 교장쌤, 시간도 한정적이지만 인간의 몸도 한정적이잖아요. 열심히도 좋지만... 잘 쉬는 것도 잘 싸우기 위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교장쌤 정말 많이 걱정해요. 오래 같이 활동하면 좋겠는데 너무 자기 몸 안 살피고 일만 한다고요.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말을 듣더니 교장쌤이 갑자기 들다방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다. 컵을 내려 놓은 교장쌤 눈이 좀 빨갛던 것도 같고.... 잠시 탁자를 내려다보던 교장쌤이 다시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경석** 그러고 보니 운동 시작하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네. 내가 노는 법을 너무 못 배운 거 같아!

**한별** 와 나 정말 잘 가르쳐줄 수 있는데.

**경석** 그래? 배워야겠네.

**한별** 돈 내시면 가르쳐드릴게요^^

인터뷰는 또 30분 만에 끝났다. 교장쌤도 나도 다시 뽀뽀한 일정으로 되돌아가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은 엄청나게 밀도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나는 늘 교장쌤을 속을 참 알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는데,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도 없이 별건 대낮에 교장쌤을 너무 많이 엿본 것 같았다. 우리는 모두 너무나 바쁘다. 교장쌤 말고도 노들야학 상근자들, 전장연 활동가들, 센터 활동가들... 정말 다들 얼마나 바쁜가! 우리 서로 많이 걱정해주자. 내가 당신을 소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많이 말해주면 좋겠다. 우리의 걱정이 '쉬는 시간'을 만들어주진 못할지언정, 내 곁에 '동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순간을 만들 수는 있을 테니까.

[노들 후원자님께]

각하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유로 물러나거나 우회하지 않았던 그의 순수함과 책임감이 일관되게 힘을 발휘했던 세월을 기억하고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장년(?)이긴 했지만 백발이 성성한 노인(미안~)이 된 오늘까지 그의 말과 행동이 대체로 어긋남이 없고, 좀 정신없긴 해도 말투나 태도의 맥락도 거의 일정하다는 점을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힘이 들 때, '그만 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은 그만해도 되는 위치에 있었거나, 그만 하고 가고 싶은 곳이나 갈 수 있는 곳이 있었거나, 이도저도 모두놓고 싶은 순간을 더는 모른 척 할 수 없는 소진의 시점을 맞이했기 때문이거나 하겠죠?

박경석은 아마도 25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그만'하거나 '잠시' 쉬자고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 그를 원망하거나 따라가긴 쉬워도 누군가 그의 앞에 서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대체 이 글을 어떻게 마무리 하려고 이러나 싶으시죠? 옛그제 박경석을 만났어요. 전생애 고래였는지 어부였는지 역시 일관되게 '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맘먹고 술 한잔하자더니 얼마 먹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올 초부터 상근비를 받지 않고 있고, 퇴직금을 정산해서 전장연 벽돌기금으로 내고는 교통비만 지원을 받고 있다며 조금 취한 채 장꼴을 타고 귀가했어요. 뭐랄까 아주 조금 비감한 마음이 들었다면.....(저도 취했었나봐요 ㅠㅠ)

저는, 박경석이 골골하며 백수하길 바래요. 지금처럼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할 수 있으면 좋고, 그 긴 세월동안 형태를 달리해 반복하고 있는 그의 꿈과 말들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면서 그렇지만 이미 다 알아들었다는 것을 서로 알 수 있는 오랜 친구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  
힘을 내요. 박경석.

안녕하세요.  
2018년도 이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도 저의 노들야학을 후원해 주셔서 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의 노들야학은 후원자님의 깊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한해 열심히 공부와 투쟁들을 하면서 달려 왔습니다. 이렇게 달려 온 것도 우리 노들야학을 후원하시는 후원자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늘 변함없이으신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노들야학에서 이번에 무상 급식 후원금 마련하기 위해 노들야학의 열 두명의 친구들이 글과 사진이 들어간 2019년 탁상용 달력과 수저를 만들었습니다. 노들야학의 일상 중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활동 지원사님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을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인가 봅니다. 이렇게 함께 급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지만 이렇게 함께 먹는 모습들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들야학 후원자 분들께 부락을 드립니다.



2018년 11월

**노들과  
함께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CMS후원인**

(주)머스트자산운용 강남훈 강병완 강복현 강선아 강성윤 강수혜 강영미 강용원 강유선 강윤석 강장자 강주성 강태영 강현욱 강해민 강희관 강희연 고경신 고경화 고동수 고명수 고명희 고병권 고선희 고수진 고승현 고아라 고아연 고재현 고정화 고재현 고혜순 공대식 공명렬 공선화 공정옥 공태윤 공호신 광남희 광노근 광상아 광성자 광영미 구민재 구세나 구승기 구영철 구현아 권경숙 권기원 권도연 권미경 권민희 권병주 권영주 권영진 권오현 권용희 권우정 권은영 권익재 권진영 권태국 권현기 권혜신 김가경 김각국 김건욱 김건형 김경남 김경란 김경아 김정은 김경준 김경혜 김계숙 김관희 김광국 김국란 김규태 김근식 김금례 김금수 김금정 김기룡 김기룡 김기성 김기오 김남수 김누리 김다은 김대희 김덕중 김도경 김도현 김동림 김동은 김동진 김두경 김두섭 김란희 김명학 김명화 김문수 김문욱 김문호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옥 김미주 김미현 김민 김민림 김민아 김민영 김민자 김민호 김민희 김범수 김범식 김보라미 김보민 김보연 김보영 김보덕 김봉석 김부연 김상수 김상원 김상희 김석규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욱 김선희 김선희 김설민 김성미 김성은 김성현 김성희 김세영 김소영 김소희 김수경 김수영 김수정 김수한 김수호 김숙영 김숙이 김순남 김아람 김안지 김애경 김연성 김연수 김연자 김연정 김연준 김연지 김연희 김연년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승 김영욱 김영희 김용남 김용성 김용우 김용욱 김용진 김용태 김우경 김원숙 김유미 김유정 김유진 김윤경 김윤석 김윤자 김윤정 김윤진 김은미 김은순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희 김이중 김이준 김인숙 김인자 김재경 김재양 김재희 김정미 김정민 김정범 김정숙 김정순 김정하 김정현 김준호 김준환 김주현 김준 김준호 김준휘 김지민 김지숙 김지순 김지연 김지영 김지원 김지은 김지환 김진수 김진우 김창배 김철순 김춘우 김탄진 김태승 김태인 김태형 김태훈 김판균 김푸른솔 김필순 김하선 김하영 김하은 김한민 김한솔 김한준 김한진 김현형 김현미 김현식 김현영 김현주 김현희 김형근 김형배 김형호 김혜미 김혜옥 김혜완 김혜진 김홍수 김효진 김희정 김희찬 김희창 김희현 나귀환 나선영 나혜니 남도호 남두형 남수혁 남정민 남지현 남호진 노경애 노규호 노미경 노상경 노의현 노현택 노혜련 도희선 도희정 류영욱 류승화 류정숙 류정하 류지왕 류향희 류혜인 마미주 마효영 맹보명 모경훈 문건화 문경희 문병준 문상민 문세환 문소리 문소리 문승이 문예진 문은영 문지의 문창배 문희정 민세연 민아영 민혜숙 박경석 박경숙 박경아 박경혜 박경화 박계선 박금숙 박누리 박란희 박명숙 박미주 박민경 박민영 박보근 박상일 박상호 박서진 박서희 박선미 박선에 박선우 박선은 박성욱 박성희 박세단 박세레나 박세영 박세진 박세호 박소영 박수인 박수진 박승원 박승하 박시백 박애경 박여의 박연희 박영환 박운솔 박완신 박유리 박은정 박인당 박장근 박장국 박장용 박재국 박정숙 박정우 박정원 박종진 박종철 박종화 박주원 박준호 박지민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진우 박찬양 박태만 박태수 박하순 박현하 박현희 박효경 박효석 반영신 방복순 배경원 배문섭 배승선 배만나 배윤주 배진숙 백미라 백상현 백수경 백승혜 백연희 백윤희 백재선 변주옥 서기현 서남고 서동석 서명순 서명아 서민영 서민호 서봉경 서유나 서은수 서정웅 서주형 서찬욱 석유원 석지은 선우대룡 선현란 설아라 성서연 성정현 성장기 소현미 손동각 손병갑 손석철 손성권 손성한 손은경 손자경 손정수 손재주 손주영 손준희 손혜연 손환목 손희경 송무림 송병준 송상훈 송선화 송영란 송은영 송정규 송중호 송주훈 송창국 송현정 신미숙 신복순 신봉순 신수정 신숙희 신순영 신승애 신연실 신영근 신원정 신은덕 신은희 신임식 신진 신현훈 심미경 심보름 심선진 심은선 심이영 심정구 아리 안경모 안경희 안남희 안문필 안바라 안석호 안선영 안소진 안연주 안영준 안정애 안정원 안정은 안종녀 안준희 안준선 안향미 안혁순 안희욱 양석주 양수경 양수정 양운근 양유진 양이승 양인순 양정화 양현준 어수진 엄순영 엄재근 엄주철 여준민 연호준 오미영 오보람 오세만 오세령 오영미 오원주 오은석 오은영 오정자 오정희 오지은 오현숙 옥생 우승영 우시우 우영선 우인숙 원명재 원민희 원성현 위순월 유기훈 유남숙 유문수 유미선 유보배 유영순 유윤영 유기영 유지예 유창재 유하연 유혜경 유희준 윤경훈 윤기남 윤기범 윤길중 윤동근 윤명섭 윤미라 윤미선 윤민진 윤봉섭 윤석규 윤선기 윤승용 윤승원 윤유정 윤이용 윤인진 윤정미 윤정민 윤정은 윤정민 윤종술 윤준서 윤호진 윤화숙 윤희 이강선 이강수 이강학 이건호 이건희 이경근 이경덕 이경아 이경욱 이경은 이경윤 이경훈 이경희 이계삼 이광만 이광재 이군자 이규식 이근희 이금주 이금희 이기순 이길용 이나라 이난경 이동진 이두혁 이라나 이라라 이리나 이명화 이미경 이미나 이미리암 이미불 이미영 이미정 이범민 이비할 이상림 이상우 이상준 이서운 이서준 이석원 이선진 이선희 이성연 이성호 이소정 이송자 이수석 이수연 이수영 이수정 이수웅 이수현 이수훈 이월찬 이연옥 이연주 이영덕 이영란 이영미 이영애 이우현 이원진 이원태 이유허 이유미 이유진 이윤경 이윤욱 이윤지 이은숙 이은애 이은정 이인서 이인성 이인영 이창우 이재령 이재승 이재란 이정민 이정실 이정숙 이정은 이정하 이정희 이재성 이재현 이종국 이종란 이종민 이종숙 이종실 이종운 이종현 이종환 이주오 이주욱 이준길 이지수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지혜 이지환 이진실 이진영 이진주 이찬미 이창열 이충희 이혁인 이한호 이현명 이현숙 이현아 이현욱 이현진 이호상 이호연 이호영 이호중 이효정 이효진 임경희 임나미 임동근 임동준 임명애 임산하 임성순 임세연 임소연 임영희 임원택 임유청 임윤아 임은영 임은정 임인자 임재연 임종현 임주현 임채원 임춘학 임태경 임태준 임하연 임향원

노들야학 열 두 명의 친구들이 만든 이 뜻깊은 달력도 여유가 되신다면 구매도 하시고 후원자님의 측면에 널리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노들야학에서 많은 사람들과 계속 해서 무상급식을 먹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투쟁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을 했음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당당히 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노들야학 후원자님.

을 한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후원자님의 건강과 가정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2018년 12월 7일.

노들 장애인 야학 드림.

후원방법 안내

1 후원계좌 안내

- **노들장애인아학**  
국민은행 488401-01-202282  
신한은행 110-025-510184  
농협 029-12-200545  
우리은행 470-07-035448  
하나은행 757-810128-43007  
외환은행 170-19-30457-4
- **노들장애인지리생활센터**  
국민은행 031601-04-165177
- **장애인극단판**  
국민은행 488401-01-202141
- **현수막공장 노란들판**  
우리은행 1005-201-820597

2 정기후원

희망하는 일정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CMS(노들로 연락)와 직접은행에서 자동이체 하시는 방법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일시후원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운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고자 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www.nodeul.or.kr 홈페이지 참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인의 고마운 나눔이 있기에 노들은 살아갑니다.

장경주 장귀분 장근영 장명희 장미희 장상순 장선영 장선정 장성권 장성아 장순임 장옥란 장원 장유경 장정아 장정화 장제형 장지희 장춘환 장혜미 장효정 전경래 전권세 전기성 전대진 전미라 전미영 전민속 전상우 전성자 전영록 전옥 전은주 전준규 전형진 정규영 정다운 정대수 정동식 정미란 정민구 정민석 정상엽 정상욱 정선애 정선옥 정성락 정성철 정소영 정승이 정승희 정연숙 정영란 정영석 정영자 정윤근 정용안 정용일 정용훈 정우영 정우종 정우준 정유진 정은경 정이성 정익화 정재훈 정정민 정정희 정종권 정종현 정중화 정중훈 정지민 정지영 정지혜 정진영 정진이 정창조 정태영 정태원 정택용 정하영 정현강 정현진 정혜린 정혜영 정호준 정훈 정희진 조경애 조규남 조미숙 조미연 조미정 조사람 조상지 조성진 조수안 조윤경 조윤실 조윤정 조은별 조은주 조은진 조윤희 조이라 조자영 조재범 조한나 조혁진 조현경 조현수 조혜민 좌동업 좌미경 좌혜경 주상연 주상희 주영은 주용춘 주은아 지덕근 지세진 지영숙 지혜림 진영옥 진영민 진태원 차순정 차종원 채윤주 채이배 천성호 천영희 천종민 천진수 최귀선 최귀숙 최기상 최동호 최미란 최민경 최별 최병훈 최병희 최보경 최서연 최석문 최선아 최선호 최승근 최승우 최열분 최영숙 최영식 최영은 최영민 최영자 최우영 최윤정 최은경 최은숙 최은아 최은정 최은화 최은희 최재호 최재희 최정민 최정원 최정은 최정희 최주형 최지영 최지우 최진석 최진영 최진희 최찬일 최천봉 최하정 최한별 최현정 최현진 최혜영 추경진 탁현철 태미화 하경남 하급철 하인혜 하정자 한경순 한남희 한래희 한명숙 한명희 한상배 한상엽 한성희 한성희 한승희 한주영 한혜선 한혜원 한희자 허보영 허소아 허숙자 허순인 허신행 허영신 허완수 허정일 허진태 허창 허효재 홍도순 홍명희 홍석현 홍성미 홍성호 홍세미 홍승대 홍순민 홍순희 홍영선 홍영희 홍은진 홍은진 홍주영 홍지연 홍진표 홍철기 홍현준 홍혜리 황무초(무임) 황성윤 황승미 황인현 황정의 황진미 황하연 황혜진 황희준

계좌이체 후원인

(주)지암메디테크 강귀화 강수혜 강영오 강윤중 겨울나기 공한복 공공운수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김미선 김선심 김용철 김은아 김철기 김태은 김홍숙 서울교통공사\_나눔봉사단 남완승 노란판 대한불교조계종대성사 류동훈 민중당김미희 박경선 서금석 손국현 신동길 신희숙 안성희 안지민 어게인 엠알엠 글로벌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세대학교빈곤인류학 오선실 오선에 오장환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헤리 윤미라 윤지형 이한진 이현숙 이현우 이효상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정충현 정효주 종로장애인복지관 착한콜위드고 최여명 최용근 (주)THL 한은서 허병권 황미향 황재숙 희망열차(김낙현)

물품 후원

- 10월 • **한살림 쌀 90kg / 책방이음&나와우리 쌀 20kg / 송인교회 쌀 20kg / 순대 실룩 배 2상자, 생필품 / 이희은 늙은 호박 5개 / 길음종합복지관 푸드뱅크 빵 9봉지, 올리고당 1상자, 린스 12통, 코코팜 12상자, 자몽 2상자 / 변명희 월 7명 / 김은순 이젤 7개, 딱풀 2개, 색연필 2개, 사인펜 3개**
- 11월 • **한살림 쌀 90kg / 책방이음&나와우리 쌀 20kg, 굴 30kg / 송인교회 쌀 20kg, / 크리에이티브 다다 도라지배즙 1상자 / 가리봉 중국동포교회 쌀 200kg, 호박 1덩이, 굴 3상자, 붐동 2상자, 감 1상자, 떡 1상자, 사과 1상자 / 유순덕 대봉 4상자 /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쌀 100kg, 김치 4상자, 굴 1상자 / 채희매, 민영기 오미자 액기스 3병 / 장미화 빵 / 최은희 바나나, 굴 / 길음종합복지관 빵 2봉지, 한라봉주스**



노란들 노란들판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실사출력, 인쇄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일터, 서로의 꿈이 상생하는 곳, 모두를 위한 들판을 꿈꿉니다.

디자인 + 인쇄 · 실사출력 · 타이벡  
T 02.469.9101 H www.norandp.co.kr

NEW BRAND 공생공장

**타이벡** made with DuPont™ Tyvek®

사람과 자연이 같이 살아가며 만드는 곳  
'공생공장'은 타이벡 원단 소재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기존 일회용 현수막을 대체하는 노란들판만의 업사이클링 브랜드입니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고자 하는 노란들판만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공생공장은 사회적기업 노란들판의 친환경 브랜드입니다. 노란들판의 감성을 담은 디자인 제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Waterproof · Super Light · 100% Recyclable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H.P www.ncil.or.kr  
EMAIL nodl@hanmail.net SNS @nodlcl  
TEL 02-766-9103 MOBILE 010-5766-9103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H.P www.420pan.or.kr  
EMAIL centerpan@420pan.or.kr  
TEL 02-6082-6420

**장애인활동보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을 "모집합니다!"**

활동보조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유급보조인의 다양한 보조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장애인 이용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만 6세~65세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활동보조(활동보조인) 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  
활동보조 기본교육 이수 필요

노들이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싶거나 궁금하게 있는 분은 연락주세요.  
T 02-766-9120 F 02-6937-1701 E nodeul@gmail.com



그런데 수십 번이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해준  
야학 학생들 덕분에 겨우 몇 마디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알아차린 것 하나.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란 없다.  
다만 듣지 않는 자, 듣지 않으려는 자가 있을 뿐이다.

<목목>

고병권 지음, 돌베개, 2018

노들바람은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재생종이를 사용합니다.

₩10,000

